KOR 성 남 시
WWW.SEONGNAM.GO.KR 9Q'.XT

2022

壬寅年

승풍파랑(乘風破浪)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간다



비전성남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기운으로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에 또 다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통해 극복해왔듯이 이번 어려움도 우리는 함께 헤쳐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2년은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성남시는 강인한 의지와 비전으로
미래 50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길에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임인년,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JANUARY 01
Vol.318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 통권 제318호 · 2021년 12월 25일 발행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모바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식 SNS

페이스북	facebook.com/seongnamdiary
블로그	seongnamdiary.com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ngnamsi
트위터	twitter.com/seongnamcity
유튜브	youtube.com/user/sndiary
틱톡	tiktok.com/@seongnam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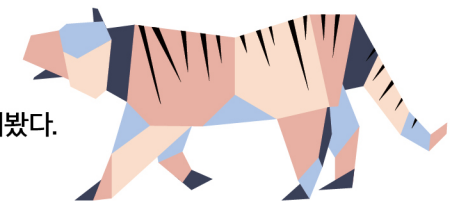
발행 성남시
편집 공보관
주소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콜센터 성남시콜센터 1577·3100
홈페이지 snvision.seongnam.go.kr

성남시 WWW.SEONGNAM.GO.KR

2022 임인년(壬寅年)

임인년(壬寅年) 새해에 바란다

호랑이띠 성남시민 8인의 새해 소망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성공·부귀·승리의 상징인 호랑이의 해다.
새해에는 어떤 설렘과 바람을 안고 있는지, 호랑이띠 성남시민 8인의 소망을 들어봤다.

취재 **비전성남 기자단**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인 되고 파"

엄지연(24·정자동)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 4년

2022년은 대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 해입니다. 그동안 소속됐던 학교의 타이틀을 떼고 오롯이 저 자신으로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대학교에서 가구와 건축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성(72·양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우리는 1950년 6·25 전쟁과 함께 태어나서 피난길 곳곳에서 갓난아기라고 잘 받아주질 않아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나이대에 비해 수가 적기도 하고요.
저는 지난달까지도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지금은 동네 가로주택정비사업 일을 함께하고 있지요. 지금의 나이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답니다.
성남시도 우리를 위한 일도 많이 늘린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을 위한 회사도 성남에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좋아요.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모든 조합원의 원하는 일이 모두 잘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모두가 즐겁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에 도전하고 현실화하는 성남의 시민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경민규(36·수진동) 회사원

어린 시절부터 20년 넘게 성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당, 판교, 위례 등 짧은 기간 내에 성남시 지역발전이 실현되는 과정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판자촌이라 불리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노후화된 권역별 재개발을 통해 살기좋은 동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을 안 한 미혼으로서, 대단지 재개발로 형성되는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을 성남시민이 우선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내로라하는 첨단기업이 모여 있는 판교 제1·2테크노밸리와 정자동 킨스타워는 작년 4월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로 지정됐다니 기쁜 소식입니다.
앞으로 청장년층이 도전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현실화하는 성남시의 시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성남화훼직판장을 꿈꿔봅니다"

이중열(60·시흥동) 성남시시흥화훼협회 회장

시흥동에서 비닐하우스 7동을 마련해 올리브 나무를 키웁니다. 올리브 나무는 가지치기를 잘해서 어느새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삽목(揷木)을 하기도 하고 씨를 뿌려 키우기도 해요. 코로나19로 화훼농가도 타격받고 있습니다.
출하 시기가 되면 소비가 돼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심어 키우기를 반복해야 하는데 의견을 나눌 모임도 제한되다 보니 정보공유 기회도 줄고,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한적인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활성화된 화훼농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금방 될 수는 없지만 정성 들여 키운 꽃과 나무들이 꾸준히 판매되고, 소비자들도 화훼생산물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성남의 화훼직판장을 꿈꿔봅니다.
화훼농가를 찾을 수 있는 1.2km(대왕판교로 970번길) 길이 열렸고, 2m 인도와 6m 차도가 생겼습니다. 농장과 농장 사이의 길 조성도 필요하고, 소비자들이 농장을 견학하고 체험하면서 올레길처럼 성남의 랜드마크로 키웠으면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관내 시흥화훼협회는 38명 회원이 주로 관엽수와 야생화를 키우고 있어요. 젊은 세대 유입이 힘들다 보니 화훼농가도 고령층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경해야만 하니 임차농이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한여름·한겨울 비수기지만 화훼작물을 키우면서 새해에는 모든 농가가 안정적으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날이 얼른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KOREA 성 남 시
WWW.SEONGNAM.GO.KR

“친구들과 마스크 안 쓰고 운동하고 떡볶이도 사 먹고 싶어요”

이정서·현서(12·백현동) 성남화랑초등학교 5학년



코로나19가 없었을 때는 여름이면 탄천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도 많이 했고 겨울에는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어서 방학이 즐거웠어요. 특히 매점에서 컵라면 먹는 것이 가장 신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수도 없고, 간식을 나눠 먹을 수도 없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동네에 판교어린이도서관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도서관에 가면 만화책을 읽으며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요즘 엄마는 두꺼워지는 책들을 점점 더 많이 빌려 오시지만 도서관에 가면 만화책을 맘껏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져요.
새해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빨리 접종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도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새해에는 우리처럼 예방접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코로나19도 물러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마스크 쓰지 않고 맘껏 뛰면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하고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모란 기름골목이 붐비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이승호(48·성남동) 모란 부흥기름집 대표

충주에서 10살 때 성남으로 이사 와서 학교 졸업 후 모란에서 기름집을 운영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일하게 됐어요, ‘부흥기름집’이라는 이름답게 일거리도 많았어요.
코로나19 상황 2년 동안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참기름, 들기름 값이 오르고, 고객들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수도권과 제주도까지 택배를 보내는데 매출이 줄고 한숨만 나왔어요.
모란 기름시장 상인들은 상지회, 제유회 등 모임을 통해 정보교류도 하고 가족같이 지내면서 이 시기를 이겨내고 있어요.
같은 업종끼리 모여 있지만 서로 도우며 삶의 터전을 일궈가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애로사항이 한가지 해결됐어요. 주차장이 생기고, 도로에 1시간 무료주차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서 성남시 직원들의 가교역할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참깨, 들깨를 볶아 기름을 짜다 보면 모란시장 골목에는 1년 365일 고소한 기름 냄새가 풀풀 나요. 저는 주문받은 물건들을 새벽에 배달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자꾸 퍼지고 가게를 찾는 분들이 뜸하고, 일이 줄다 보니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새해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되고 시민들께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곳을 많이 찾으시겠지요?(웃음) 모란 전통기름시장 골목이 손님들로 붐비고, 지역경제가 얼른 되살아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또 하나, 젊은 층이 모란에서 짠 기름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고 젊은 층 고객이 많이 찾아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코로나19 위기 이겨내고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계경채(60·태평동) 성남시의료원 피부과장



코로나19로 힘들고 우울한 시간이 어느덧 흘러 2021년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삶을 잘 지켜오신 모든 분께 이제는 밝은 미래와 희망에 찬 새해가 성큼 다가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성남시의료원 의료진과 전 직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하며, 우수한 장비와 훌륭한 의료진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개원 1주년이 지났지만 어엿한 종합병원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만족해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오늘도 힘을 얻고 새해를 멋지게 맞으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진료하는 피부과도 새로 오픈해 새해에는 누구보다도 바빠질 것 같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역사는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 종식하고 성공·부귀·승리의 상징인 호랑이해 2022년 임인년에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빌어봅니다.



“청년 서포터즈 활동 많이 생겼으면…”

원주희(24·신흥2동) 쇼핑호스트

내년이면 20대 중반을 맞이합니다. 졸업과 취업 시기가 맞물리면서 사회초년생으로 겪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인데요. 제 주변 친구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취업 준비를 해도 자기 적성에 맞는 건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래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학생일 때나 직장을 구하고 나서도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들이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성남시에도 청년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기간(분기별) 서포터즈 모집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지원 플랫폼 ‘판교역&’이란 곳에 가면 직업상담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추천도 해주고 저도 가 봐야겠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홍보도 서포터즈 활동으로 넣어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남시에는 고민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KOR 성 남 시 WWW.SEONGNAM.GO.KR

2022 성남을 그리다



호랑이의 해를 맞으면서

윤종준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2022(壬寅)년은 호랑이의 해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호랑이는 신선을 호위하는 영험한 동물이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이면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다. 호랑이는 보통사람이 제압하기 어려운 동물이긴 하지만 곶감 하나로 물리칠 수도 있다.

호랑이는 3재(災)를 물리치는 힘이 있어서, 새해가 되면 축복하는 뜻으로 대문에 그림을 걸거나 붙이는 문배(門排)로 호랑이 그림을 사용했다. 또한 입춘 때에도 용(龍)과 호(虎)를 쓴 글씨를 대문에 붙이기도 했다. 남자아이의 돌이나 명절 때 쓰는 호건(虎巾), 베갯모, 까치호랑이그림, 절에 가면 산신각에 걸려 있는 신선도뿐 아니라 무관 벼슬하는 관복의 흉배(胸褙)에도 호랑이를 장식했다.

옛날이야기 속에서 호랑이는 어리석기도 하지만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영물이기도 하다. '효자 호랑이 이야기'에서 호랑이를 만난 사람이 울면서 "어머니가 형님을 잊지 못하고 슬퍼하십니다" 하는 말을 믿고 호랑이가 수시로 늙은 어머니를 위해 산토끼나 노루를 잡아다 주기도 한다.

호랑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속담도 많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고, 범 가는 데 바람 간다고 한다. 중국 한(漢)나라의 명장인 이광(李廣)이 사냥을 나가서 바위를 호랑이로 착각하고 화살을 쏘았더니, 화살이 바위에 그대로 꽂혔다고 한다.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정신을 한곳에 모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호랑이해를 맞아 우리 성남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나라 도시발전사에서 성남시는 호랑이가 질주하듯이 변화 발전해왔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한적한 농촌과 산촌이던 마을이 50여 년 전, 광주대단지라는 이름의 천막촌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황금알을 낳는 도시가 됐다.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호랑이보다 무섭던 시절인지라,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마음 둘 경황이 없었기는 하다.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1년여 눈앞에 두고 있는 새해에는 도시발전 과정에서 잃었던 역사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조금씩 열매를 맺어간다.

성남역사박물관 개관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다가오는 여름에는 교육동 건물이 우선 개관한다는 소식이다. 1971년 '8·10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당시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한 성남 역사의 현장인 제1공단 부지가 그 현장이다. 아울러 원도심 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역사문화아카이브 구축사업도 착실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아동학대 대응과 아동친화도시

백소현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아동의 기본 권리를 약속한 것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협약에 비준했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최근 '정인이 사건' 이후부터 더 이슈화된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년 심각한 학대 사건이 있었고, 매번 아이가 사망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듯이 그에 따른 법 개정과 대책 발표가 반복됐다.

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 같은 시기 울산에서도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한 사건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주변인들의 신고의무를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했다.

2020년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신고의무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하지만 아직도 제도는 미흡하다. 신고 의무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즉 아동학대에 대한 필수교육 확대, 그리고 신고의무자의 신변보호 강화에 대한 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신고하는 신고의무자들의 부담이 줄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누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겠는가?

학대자 처벌을 강화했고, 신고자 의무를 강화했다면 이제 교육을 통해 학대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국민 누구라도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신고자의 신변 누설,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신고의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위협받고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미리 제도를 만들어야 할 시기다. 국민 모두가 신고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지속돼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 안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치료 등을 민간 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했으나, 개편 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조사업무가 제외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 신고체계는 신고자-전담공무원-경찰이 긴밀하게 유지돼야 한다. 24시간 언제든 신고가 있을 때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성남시는 2021년 8월부터 4년간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는 등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공공화사업을 추진했으며 2021년 7월부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 업무 전반을 맡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24시간 대응체제로 유지해 체계적인 신고접수 및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아동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고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시스템 유지가 가능하다.

전담공무원구성과 더불어 학대 사례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지역마다 아동학대 전담병원을 확대 편성해 병원에서도 학대 환아의 신고 및 전문적인 진료가 24시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에서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학대'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한다. 정인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제도 및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적,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2022년, 선도적인 대응을 해온 성남시도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 확충과 제도 개편에 앞장서 길 기대한다.

성 남 시
WWW.SEONGNAM.GO.KR

성남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이 전국적으로 주목받으며 자원순환도시 선도사례로 자리잡았고, 2022년에는 환경교육을 위한 '스마트그린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도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이 20일 길어지고 겨울이 22일 짧아졌다. 연평균기온은 1.6도 상승했고, 열대야 일수는 8.4일이 늘어났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평균기온을 상승시키면서 기상 패턴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 한파, 홍수, 슈퍼태풍, 해수면 상승, 산불과 같은 기상재난이 빈번해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1℃ 상승했으며, 앞으로 1.5℃ 이상 오르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앞으로 20년 이내에 1.5℃를 넘어설 수 있는데, 이를 피하려면 2050년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도대체 탄소중립이 무엇일까? 성남시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

탄소중립사회는 인간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더하지 않는 상태, 즉 순배출 제로 사회를 의미한다. 배출량을 최소화한 가운데, 일부 배출하는 양은 나무나 탄소포집저장기술을 통해 흡수해서 상쇄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인류가 지난 200년간 의존해온 에너지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9년 이내에 부문별 감축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2021년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성남시도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지방기후위기적응 대책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 이미 성남시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탄소중립도시를 향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 거버넌스로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며, 시가 예산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배출을 사전에 검토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탄소중립도시 신청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2022년은 성남시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와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성남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이 전국적으로 주목받으며 자원순환도시 선도사례로 자리잡았고, 2022년에는 환경교육을 위한 '스마트그린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교통부문에서는 궤도 중심 교통체계 마련을 위한 트램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자립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판교에는 전력 수요 자원 관리와 가상 발전 사업을 하는 에너지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어서 이들과 협업해 마이크로 단위의 전력 시스템을 실험해보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

성남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과 기반이 튼튼한 곳이다. 2022년 탄소중립과 녹색도시를 향한 성남의 전력 질주를 기대한다.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민관협력이 필수적

정지원 자율주행 스타트업 모라이 대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차는 아주 먼 미래에서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자율주행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고, 현재 낮은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의 눈부신 성장은 사람들에게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점점 높아지게 됐고,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자율주행 관련 분야 종사자가 아니라면, 자율주행차 테스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움직임을 시험하는 상황을 상상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실도로 테스트만으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돌발상황과 기상조건을 충분히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없어 확률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꼭 필요하다.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 반드시 가상 환경 테스트를 거치도록 국제 표준까지 마련돼 있을 만큼 시뮬레이션 테스트는 필수다.

성남시가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 샤크(SHARK)를 관내 연구·개발 기업 및 기관에 지원한 것도,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성남수질복원센터 등 여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및 시험장 등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실도로 테스트 또한 완전히 배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차의 최종 검증 단계에서 VILS(Vehicle-in-the-Loop Simulation)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는 실도로에서 시험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에 가상으로 구현된 테스트 시나리오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 보행자 등을 실도로 위에 있는 차량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으로, 혼합 현실(Mixed Reality) 기술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VILS가 실제 자율주행차가 가상 환경을 실제 환경처럼 인식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가상 환경 안의 자율주행차가 실도로 환경을 인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를 연계해 관제 센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정밀지도(HD map)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기 구축된 시뮬레이션 환경 안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며, Open API를 이용해 그 도로의 실제 교통 상황을 시뮬레이션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제 센터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VILS처럼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요즘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굉장히 가까운 기술로, 민관 협력이 잘 이뤄진다면 자율주행 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과 이에 대한 검증 기술이 발맞춰 발전해나가고 있지만, 아직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까지 넘어야 하는 산은 여전히 많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 데이터 제공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며 합심한다면, 믿고 탈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리모델링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성남

신동우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성남의 역사와 전망

우리가 알다시피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성남이 오늘의 분당과 판교밸리까지 포함하는 대도시로 성장해 온 그 50여 년의 도시 역사는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과 그 이후의 경제성장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즉 역사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00불 시대에 시작된 성남은 7천불 시대에 신도시로 탈바꿈했고 2만5천불 시점에서는 판교밸리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성남은 우리의 시대적인 아픔과 경제성장의 자부심이라는 양면을 가지며, 우리 도시 역사에서 보면 길지 않은 기간에 드라마틱한 반전의 역사를 가진 매우 흥미진진한 도시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도시가 앞으로 지향하고 가꾸어 가야 할 가치를 설정하는 일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도시의 미래 가치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보존과 개발, 그리고 리모델링

성남은 그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수도권 어느 도시보다도 성장과 발전의 잠재력을 가진 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도시 환경적인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성남이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그리고 도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존과 개발, 그리고 리모델링이 모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만은 시민들이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한다.

철거 후 재개발·재건축은 세월이 지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철거된 공간의 역사와 문화는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7천불 시대에 공급된 분당의 마을들이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성남시가 발벗고 나서고는 있지만, 마을은 온통 수익성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지원은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의 의미와 역할을 도시 사례를 통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지속 가능성의 사례와 리모델링

그리스의 작은 섬마을 산토리니, 거기에 무엇이 5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을까? 50만이 안 되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피렌체,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을까?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유수한 대학들, 100년 이상 캠퍼스 이미지를 보존하며 어떻게 첨단 시대의 학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분명한 것은 도시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의 실체가 물리적인 공간과 시설이 얼마나 현대적인가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도시가 가진 콘텐츠의 매력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음식이 담긴 그릇보다는 음식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도시의 콘텐츠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들을 보면 대부분 그 콘텐츠에 담겨 있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가 그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와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시간을 수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도시와 대학의 이미지, 그럼에도 지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그 원동력에는 '리모델링'이라는 건축가와 공학자들의 피땀 어린 역할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남시민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트램은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공간 정책 수단이다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은 호랑이해다.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기세가 호랑이의 기상으로 한풀 꺾였으면 하는 기대를 조심스레 하며 성남시의 2022년 교통을 그려보고자 한다.

현재 성남시 관내에서는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도시 및 광역철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성남시를 오고 가는 통행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교통의 중심이 돼 외부통행과 연계해 시 내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성남시만의 도시철도 사업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2021년 11월부터 성남시가 도시철도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구상하는 도시철도망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자동차를 제외한 다양한 도시 교통수단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어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트램 차량을 기본으로 해 도시 교통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다양한 노선을 검토하는 것이다. 성남시의 계획대로라면 2022년에 트램 사업 추진에 대한 가부가 결정될 것이다.

성남시가 트램을 도시교통의 핵으로 결정한 것은 단순히 현재의 교통상황을 개선한다는 의미만은 아닐 것이다. 도시공간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정책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다. 트램은 도시공간에 있어 타 교통수단처럼 소극적인 수단이 아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용환경개선이라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공간이용행태를 적극적으로 바꾸기 위해 공간구조를 혁신하는 수단이다.

교통이 아닌 공간에 관한 생각을 바꿔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공간 정책의 수단이 바로 트램인 것이다. 따라서 트램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동시에 트램을 활용해 도시공간의 미래를 계획하는 작업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성남시는 트램을 도입하는 데 있어 교통수단은 서비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비스는 물리적 상품만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감성적 혹은 이미지적 요소가 반드시 포함된다. 트램 도입으로 발생할 차량 소통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트램 도입으로 변화할 도시의 미래, 긍정적으로 변화해 나갈 도시공간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도시공간을 아우르며 사업이 추진되는 트램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타 사업보다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교통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도시공간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도시민의 생활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교통환경의 변화라는 작은 부분보다는 생활의 질이 바뀔 수 있다는 보다 구조적인 측면을 알리는 데 정책적인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차만을 위한 차도가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간이 넓어지고 차가 아닌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많아져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공간이 될 수 있는, 작지만 큰 걸음을 뗄 수 있는 2022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성남시 2022년도 본예산 3조2,639억 원 편성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 등 4차 산업 육성 중점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

3,263,923 백만 원
2022년 — 8.59% 증가

3,005,653 백만 원
2021년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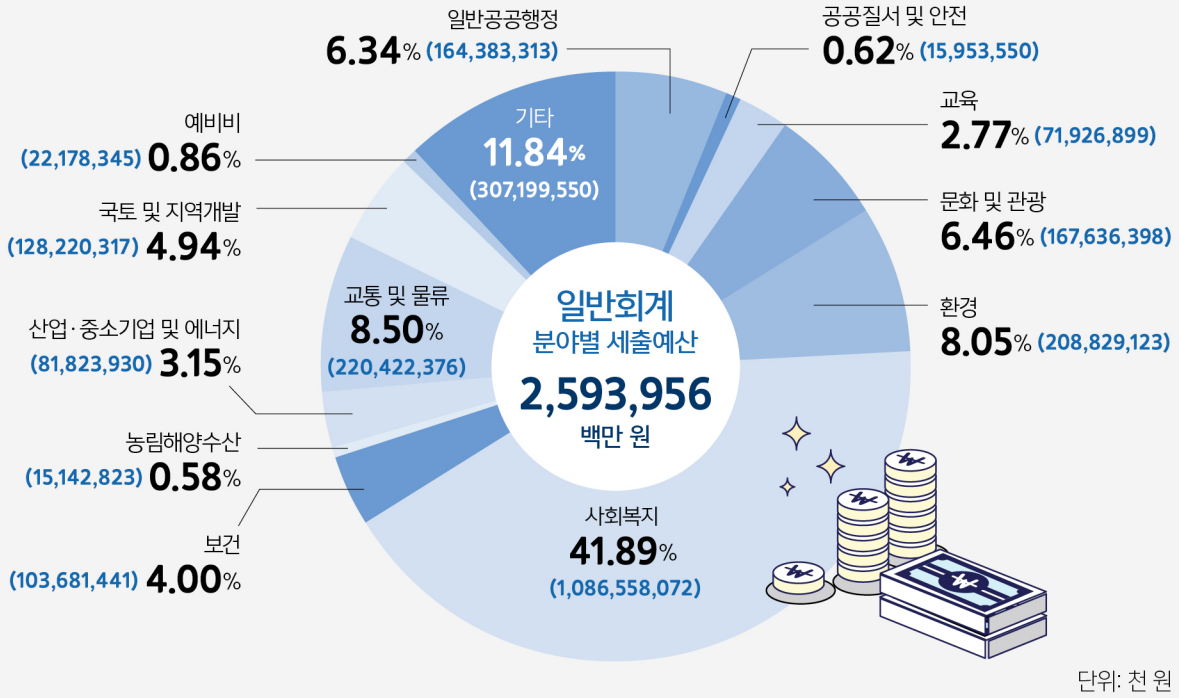
2,593,956 백만 원
2022년 — 10.35% 증가

2,350,733 백만 원
2021년

특별회계

669,967 백만 원
2022년 — 2.30% 증가

654,921 백만 원
2021년



단위: 천 원

위례신도시 철도시대 연다,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 개통

남위례역 경유하는 4개 버스노선도 확충



서울지하철 8호선의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있는 남위례역이 12월 18일 신설 개통됐다.

18일 첫차(오전 5시)부터 서울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을 운영 개시했다.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8호선의 유일한 지상역으로 수정구 복정동 57 일원 1만2,910㎡ 부지에 복선의 상대식 승강구조를 갖추고 있다. 운행시격은 평일 기준 첨두시간은 5~6분, 비첨두시간에는 8~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위례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성남시는 남위례역의 조기 추진을 위해 2018년 4월 16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했고, 2018년 9월 20일부터 서울교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민들로 구성된 '조기추진 협의회'를 운영했다. 조기추진위원회를 통한 착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 끝에 2019년 12월 6일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지난해 1월 10일 공사를 착공했다.

남위례역과는 별도로 '위례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인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과 복정역을 잇는 길이 5.4km 위례선 트램 사업은 현재 건설공사 입찰서를 접수받아 심의 중이다.

서울지하철 8호선 추가역인 남위례역 개통(12.18)에 맞춰 이곳을 경유하는 4개 버스노선을 확충해 12월 24~25일 운행을 시작했다. 해당 버스는 시내버스 60번(상탑동↔복정역)과 주말형 시내버스 53번(남위례역↔남한산성로터리), 위례신도시 성남지역 순환 마을버스 22번과 23번이다. 이들 버스는 남위례역사 조성부지로 진입해 승객을 태운다.

현재 남위례역 외부를 경유하는 광역·시내버스는 13개 노선이며, 남위례역사 내부로 진입하는 버스는 이번 4개 노선의 성남시 운행 버스가 유일하다.

교통기획과 철도팀 031-729-2476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031-729-8567

남위례역 경유 4개 버스노선


시내버스 53번(주말형) 노선 신설


시내버스 60번 노선변경


마을버스 22번 노선 신설


마을버스 23번 노선 신설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172명 모집

1월 17~21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고용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실시, 연간 34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에 172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가구는 120% 이하), 재산 3억 원 미만의 시민으로, 참여 희망자는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가점 관련 서류(해당자)를 가지고 방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월 21일 사업부서에서 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탄천습지생태원 관리와 생물서식처 조성, 낙엽 퇴비화 사업과 성남시민농원 조성, 마을 텃밭·꽃길·화단 조성 등 29개 사업장에서 일한다.

시간당 9,160원 임금으로 주5일 근무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1일 5천 원의 부대 경비가 지급되며, 만 18~64세 참여자는 1일 6시간, 65세 이상 참여자는 1일 3시간을 근로하고 연령에 따른 4대 의무보험도 가입된다.

고용노동과 공공일자리팀 031-729-2725~7

성 남 시
WWW.SEONGNAM.GO.KR

2022년 달라집니다

취재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

1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자동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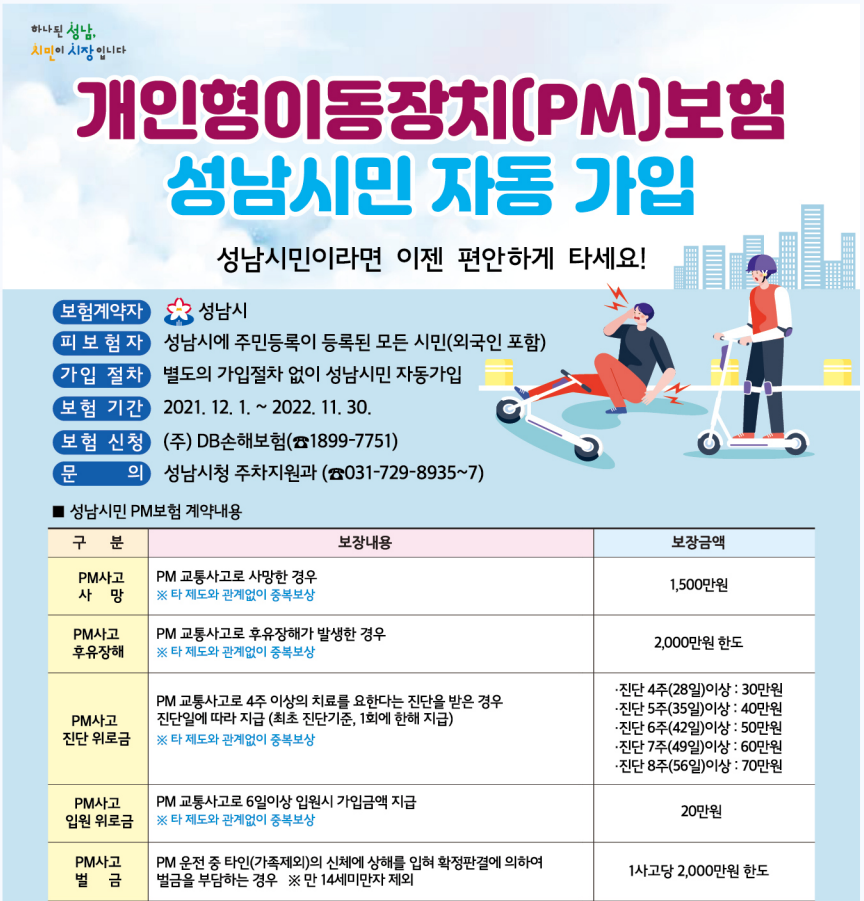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1인용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가 시민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를 말한다.

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12월 1일 ㈜DB손해보험과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 사고를 내거나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하면 된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피해·가해 보상에서 제외한다. 또 14세 미만자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피해로 인한 보상금	가해로 인한 보상금
- 피해로 인한 보상금 - 후유장해 2천만 원 한도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1,500만 원 - 상해 진단 위로금 4주(28일) 이상 30만 원~8주(56일) 이상 70만 원 지급 등	- 벌금 확정판결 사고 1건당 2천만 원 한도 -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 1건당 200만 원 한도 -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 원 한도

주차지원과 나눔주차팀 031-729-8936



2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는 지난 12월 21일부터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했다. 표지색상이 남색으로 변경되고 표지 안쪽 면은 태극 문양과 불국사 석가탑 등 우리나라 문화유산 이미지로 디자인됐다. 개인정보면은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뀌어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각인한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하고 여권 번호 체계를 변경하는 등 최신 보안 요소가 적용됐다. 면수는 48면→58면, 24면→26면으로 늘어나고, 기존 '책자형 사증란 추가 제도'는 폐지된다. 이 차세대 전자여권이 여권 위·변조 기술에 선제 대응해 자국민을 보호하고 출입국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병역의무자에게 국외 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던 여권 제도가 12월 1일 개선돼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역, 병역미필자, 대체 복무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자는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을 찾지 않고도 간편하게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신청 땐 일괄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이 발급된다.

민원여권과 여권팀 031-729-2382

3 코로나19 NEW복지대상자 생필품 지원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폐업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공적 지원비 지급 전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주는 긴급 지원이나 맞춤형 급여 같은 공적 지원비가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되기까지 3일~2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새로운 맞춤형 복지다.

시는 1월부터 지급 품목과 방식을 구체화한 뒤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 등을 통해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지원해 생활 안정도 돕는다.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31-729-2843



사랑의 손으로 폭력을, 훈육의 입으로 분노를, 멈추세요!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예방 책자' 배부

아동친화도시 성남시는 아동학대 예방 책자 『사랑의 손으로 폭력을, 훈육의 입으로 분노를, 멈추세요!』를 제작해 지난 11월 관내 550개 어린이집과 전국 250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포했고, 12월 전국 228개 지자체에 추가로 배포한다.

책자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양육 지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장의 어린이집 관리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어린이집의 특성 및 보육교사의 특성,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의 예, 부적절 상황에서의 긍정적 행동 지도하기, 보육교직원으로서 영유아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목록 제시' 등의 교육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 노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는 11월 아동학대 자가점검 및 사례 중심 책자 『지금 당신은 훈육을 하고 계십니까? 학대를 하고 계십니까?』 8천 부를 제작해 2022년 취학예정 아동 부모에게 배포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야탑역, 모란역, 태평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사업으로 아동학대가 줄어들고 아동학대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031-729-2942

성 남 시
WWW.SEONGNAM.GO.KR

행복한 싱글을 위해! 사회적 가족도시 성남의 1인가구 지원

안전, 돌봄, 생활지원서비스, 간병비 등 맞춤서비스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01



02

01 사례자의 가정에 방문해 반려식물을 전달하는 모습
02 중장년 1인가구에 설치된 안전알림IoT기기

2022년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1인가구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살펴봤다.

성남시는 1인가구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을 차지(11만5,433가구-전체 가구의 31.2%, 2020년 통계청 자료)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청년층이 39.6%, 중장년층이 39.3%, 노년층이 20.4%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성남시 1인가구의 주를 이룬다. 남성은 청년·중장년, 여성은 60세 이상 고령이 많다. 이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다각도로 시행되고 있다.

1인가구지원팀 유지은 주무관은 "2019년부터 1인가구 정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식개선, 사회적 고립 예방,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 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안전알림서비스**가 있다. 움직임 및 실내 온도, 조도 등을 감지해 실시간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서비스 대상자와 복지통장, 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주민과 1:1 매칭을 통해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이를 매개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정서적 지원까지 이어가고 있다.

유지은 주무관은 "2021년 사업 실시 후 고독사 사례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 인식이 많아져서 1인가구에서 추가로 IoT 설치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9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례자를 발굴, 노쇠하고 장애, 질병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형광등·수전 교체 등 **생활지원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청년층 1인가구를 위한 행복주택과 셰어하우스(같이하우스)도 운영 중이다. 성남시 소유 아파트를 활용, 무주택 1인가구(여성 청년)를 위해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셰어하우스(중원구 성남동 소재)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층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도 계속해 2024년까지 삼평동 2030세대 공유형 주택 100호 등 소형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유주방 사업인 **'함께해요~ 우리동네 같이부엌'**, 1인가구로 구성된 동아리모임 육성·지원, 혼자 사는 여성 100가구에 무료 지원되는 **'365우리집 지킴이 4종 세트**(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지원 사업'**도 호응이 높다.

요즘은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는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간병비 지원 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월소득인정액 182만7,830원 이하)의 1인가구가 대상이며 병원(관내 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하루 간병비는 10만 원 기준 70%(하루 최대 7만 원, 연 최대 21만 원)다.

1인가구원 김○○ 씨는 "사실 갑자기 입원이라도 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어쩌나 하는 게 큰 걱정입니다. 간병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시가 간병비 지원을 해주니,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나도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라고 반겼다.

간병비를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성남복지이음→복지정보→1인가구지원서비스→커뮤니티→공지사항), 간병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는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뒤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1인가구 지원정책이나 복지서비스는 성남복지이음(http://snbokji.net)→복지정보 탭에서 확인 가능하다.

1인가구가 자칫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는 사회적 가족도시 성남의 '1인가구 지원정책'이 더욱 기대된다.

"소아청소년과 고령층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세요"

안전한 일상회복 위해 코로나19 3차 접종 단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12월 14일(0시 기준) 7,850명 발생해 역대 최다 확진자수를 갱신했다. 성남시도 12월 9일 신규 확진이 1,97명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수는 12월 21일 0시 기준 1만 3,014명을 기록했다. 확진자와 중증환자 급증으로 중증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정부는 연말연시 모임과 이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월 18일(토)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강화했다. ▲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로 제한하고 ▲ 운영시간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제한한다.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도 축소하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소아청소년의 기본접종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 확진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종효과가 감소하는 고령층 접종완료자의 확진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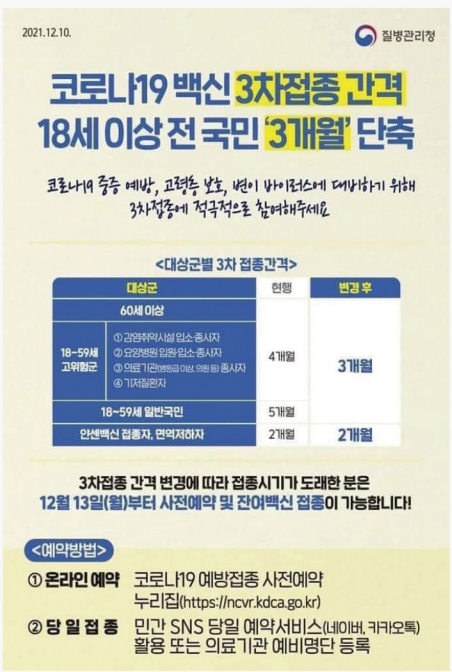
3차 접종은 돌파감염에 의한 입원(93%), 중증(92%), 사망(81%)을 예방할 수 있고 2차 접종만 했을 때보다 확진율은 11.3배, 중증확률은 19.5배나 감소하는 등 예방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변이 확산에 대응해 18세 이상의 3차 접종 간격도 3개월(90일)로 단축해 시행한다.

성남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당일 현장 접종과 사전예약을 병행하고, 어르신 전화 예약 지원, 홀몸노인 접종 병원 동행 및 차량 지원 등 다양한 접종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종효과 감소로 3차 접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과 위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3차 접종을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재난안전관 예방접종TF팀 031-729-4522





이용자 중심의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열린 공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관

취재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희망을 키우는 곳이었죠."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와 새벽부터 줄을 서던 청년은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다.

1983년 성남시 최초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해 10년 동안 성남시 유일의 공공도서관으로 많은 이들이 입시와 취업 공부를 하고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이라는 정식 이름보다 '희망대도서관'이라는 애칭으로 통하던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이하 성남교육도서관)'**이 11개월의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12월 1일 재개관했다.

원도심을 바라보며 40년 가까이 성남시민과 함께하고 있는 성남교육도서관은 이번 리모델링으로 이용자 중심의 열린 공간, 독서와 함께 휴식과 문화를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청소년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변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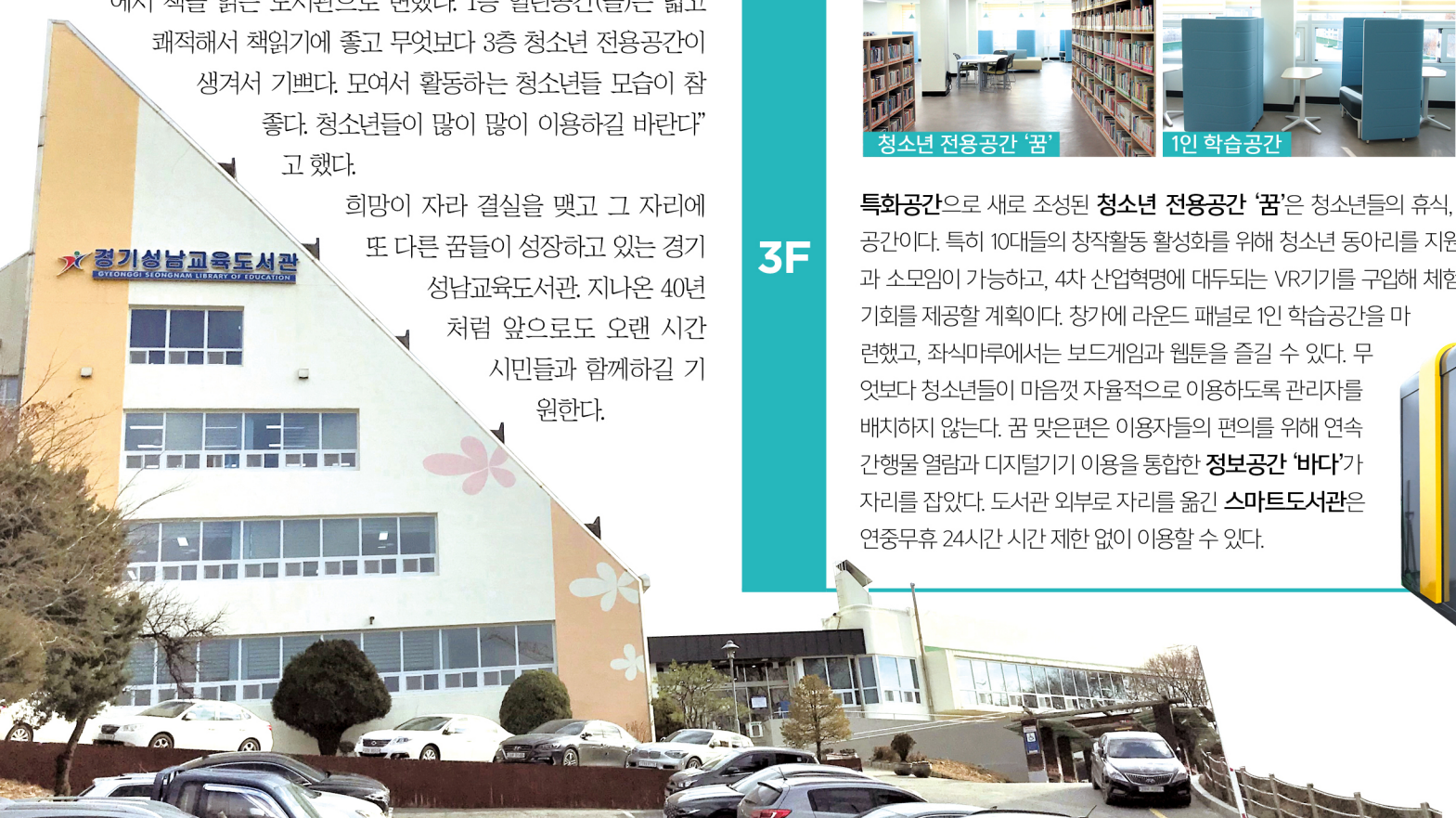
삼각지붕의 외관은 정든 모습 그대로지만 내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1층부터 5층까지 이동이 한결 편하고, 창호와 냉난방기가 교체돼 아늑하다. 자료실마다 곳곳에 다양한 열람석을 마련해 이용자의 동선을 최소화했다.

성남교육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역할과 함께 교육도서관으로서 독서교육 역량 강화와 학교교육을 지원**한다.

장서는 청소년과 어린이 추천도서, 교과수업자료 구입으로 학생 중심 자료를 확충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수집자료 대비 약 60%가 학생 중심 자료다.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교수학습과 자기계발 자료를 무료 택배로 서비스하는 **'스쿨북서비스'**,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유치원생들이 도서관을 체험하고 책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제공하는 **'이동도서관'**은 성남교육도서관만의 정보서비스다. 성남교육도서관 자료는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이용 가능하고 **1회 10권 21일간 대출**할 수 있다. 성남시 공공도서관 회원도 교육도서관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책이음 회원이라면 회원가입 없이 대출할 수 있다.

성남교육도서관을 이용하는 윤혜숙 작가는 "공부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도서관으로 변했다. 1층 열린공간(뜰)은 넓고 쾌적해서 책읽기에 좋고 무엇보다 3층 청소년 전용공간이 생겨서 기쁘다. 모여서 활동하는 청소년들 모습이 참 좋다. 청소년들이 많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희망이 자라 결실을 맺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꿈들이 성장하고 있는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지나온 40년처럼 앞으로도 오랜 시간 시민들과 함께하길 기원한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층별안내

1F


어울림공간 '뜰'


어린이공간 '빛'


어린이실 유아공간

안내공간 '터', 어울림공간 '뜰', 어린이공간 '빛', 강의실 '채움' '배움' '돋움', 커뮤니티 실과 카페가 조성됐다. **뜰**은 이용자의 선호도와 학습 방식을 고려한 열린 북 카페. 신간도서와 다(多)대출 도서가 전시돼 자료실에 가지 않아도 책을 바로 읽을 수 있고, 1~2인석부터 소파까지 휴식, 소통, 학습, 독서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학부모와 마을주민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실과 카페(운영 예정)까지 도서관이 지역주민, 이용자들과 더 가까워졌다.

어린이실 '빛'은 열람환경이 어린이와 유아의 눈높이로 조성됐다. 벽면 서가는 뻗어나가는 나뭇가지가 연상되고 넓은 온돌마루와 창 가득 들어오는 햇볕이 좋은 유아실은 책을 꺼내 뒹굴고 싶어진다.

어린이실 입구 **'마을과 함께하는 새 책 평가단'** 서가는 지역주민 15명, 사서 3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출간 1년 이내의 신간 도서를 읽고 토론해서 선정하는 초등학교 학년별 추천도서를 전시한다. 성남교육도서관만의 정보서비스로 매달 선정되는 추천도서는 도서관의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snlib_book)에 소개하고 연 4회 분기별로 추천도서 포스터를 제작해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 배포한다.

2F


자료공간 '지혜'


자료공간 '지혜'

자료공간 '지혜'는 도서와 비도서를 통합해 이용자들이 DVD도 직접 대출할 수 있고, 칸막이가 제거돼 서가 이동이 수월하다. 도서관 주변 자연환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창가 열람석은 나만의 공간으로 운치 있다. 무수히 많은 책, 무엇을 읽을지 망설인다면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 코너'를 이용해도 좋겠다.

3F


청소년 전용공간 '꿈'


1인 학습공간


정보공간 '바다'

특화공간으로 새로 조성된 **청소년 전용공간 '꿈'**은 청소년들의 휴식, 소모임, 창작활동, 개인학습을 위한 공간이다. 특히 10대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한다. 가변형 책상은 자유로운 토론과 소모임이 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두되는 VR기기를 구입해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가에 라운드 패널로 1인 학습공간을 마련했고, 좌식마루에서는 보드게임과 웹툰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다. 꿈 맞은편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속간행물 열람과 디지털기기 이용을 통합한 **정보공간 '바다'**가 자리를 잡았다. 도서관 외부로 자리를 옮긴 **스마트도서관**은 연중무휴 24시간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행복한 육아 건강한 가정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내선4번)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회원 모집

- **대상** 취학전 영유아 자녀를 둔 성남시민 및 성남시 재직자
-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커뮤니티→ 공지사항 → 1월 장난감도서관 상시회원모집)
- **신청지점** 센터본점, 수정점, 분당판교점, 양지점, 중원점, 분당구청점, 금광점, 태평점, 위례점
- **신청기간** 2022. 1. 1(토) 00:00 ~ 1. 15(토) 23:59(※ 대여시작일: 1. 25(화))

※ 지점마다 모집인원이 상이하며 선착순으로 신청

대여 장난감 택배서비스 안내

- **대상**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회원 • **신청일** 2022. 1. 3(월) 00:00 ~ 1. 5(수) 23:59
-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 접수(→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장난감 택배 서비스 안내)
- **이용방법** 홈페이지 사전신청 → 장난감 컨설팅(유선으로 소형 장난감 최대 6점 선택) → 택배비 입금 → 택배발송(장난감 대여) → 각 지점 아이사랑놀이터에 무인반납
- **택배비용** 편도비용으로 1건당 박스 사이즈에 따라 택배비 상이(장난감 컨설팅 시 택배 박스 사이즈 결정/ 최대 6호 사이즈까지 가능)
- **문의** 각 지점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일생활균형지원팀 031-754-9327

성남시민을 위한 무료 노무·양육상담(개인상담)

구분	노무상담실	자녀양육상담실
일정	전화 및 사이버상담 가능 ※ 면접상담은 센터로 문의	사이버상담 가능 ※ 면접상담은 센터로 문의
대상	성남시 거주 및 관내 재직자	성남시 거주 1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내용	육아휴직, 부당해고, 퇴직, 임금체불 등 근로 상담	자녀문제행동, 양육고충, 발달검사, 다중지능검사 등
신청	월~금요일 09:00-18:00(전화 접수,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공동육아나눔터 놀이 공간 이용

- **이용시간** 월~금 10:00-17:00 ※ 예약제(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소독 중 이용 불가(11:30-12:00, 14:30-15:00, 16:30-17:00)
- **이용대상** 성남시 거주 13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부모-자녀 동반입실)
- **장소** 센터(신흥) 내부 공동육아나눔터
- **내용** 부모와 자녀가 내방해 장난감 및 도서 이용(※ 1가족만 입실 가능)

공동육아나눔터(고등동)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상시 모집

- **모집대상** 성남시 거주 초등학교 1~3학년 아동, 맞벌이가정 자녀 우선참여 접수(증빙서류제출 필수), 방학기간 및 단기간 이용 가능
- **위치** 성남시 수정구 고등로 57, 성남고등마을행복주택 102동 주민복지관
- **운영시간** 월~금요일 13:00-18:00 • **이용료** 무료
- **운영내용** ① 도서·장난감 이용 및 간식 제공
  ② 다양한 돌봄프로그램 운영 ※ 그림책놀이, 과학실험, 원예, 클레이공예, 체육 등
  ③ 분기별 부모-자녀 교감프로그램 운영 ※ 요리, 도자기공예 등

※ 모든 프로그램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www.family.go.kr(참여마당→프로그램 참여신청)

성남시여성비전센터 031-729-8548

여성노동자차별상담센터 무료 노동상담 안내

여성노동자차별상담센터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상담내용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관련 노무상담·육아휴직, 직장 내 성차별 고충상담 및 권익구제 지원
상담대상	성남시 거주자 및 성남시 관내 재직자
상담방법	- **전화** 031-729-8548 - **홈페이지** https://www.seongnam.go.kr/womanvision - **방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MG새마을금고 5층(태평동) 성남시여성비전센터

※ 코로나19 전파상황으로 인해 가급적 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시고, 방문 시 사전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첫출발을 위한 인생의 소중한 책 선물 첫출발 책드림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성남시 거주하는 만 19세(2003. 1. 1. ~ 2003. 12. 31.)** 중 성남시립공공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에서 **2022년 6권이상 도서를 대출한 청년**
신청장소	온 라 인 : 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snlib.go.kr (도서관안내 → 이용안내 → 책드림사업) 오프라인 : 가까운 시립 공공도서관 15개소
신청서류	도서대출 인증서류 - 도서관 대출 :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 대출이력(내서재 → 도서이용정보) 혹은 대출 확인증 - 전자책 대출 : 도서관사업소 전자책 대출이력(도서정보/디지털 → 전자도서관) ※ 본인이 기재한 주소로 성남시 거주 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모바일 성남사랑도서상품권 2만원(연1회) 지역서점 도서구입전용 ※ 지급가능환경 : 본인명의 휴대폰,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상품권 신청·지급일정

구분	신청 기간	지급일자
1차	2022. 1. 1. ~ 2022. 3. 31.	2022. 4. 8.(금)
2차	2022. 4. 1. ~ 2022. 6. 30.	2022. 7. 8.(금)
3차	2022. 7. 1. ~ 2022. 9. 30.	2022. 10. 7.(금)
4차	2022. 10. 1. ~ 2022. 12. 12.	2022. 12. 16.(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snlib.go.kr) 참조 ※ 문의사항 : 031-729-4673(도서관지원과)

성남시

성남시민농원(실버텃밭) 분양 신청하세요



성남시농업기술센터는 성남동 4841번지 일원 시유지 내에 친환경 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텃밭을 조성해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분양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 09:00 ~ 1월 14일 18:00
- **위치** 성남시민농원(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841번지 일원)
- **분양면적** 12m² 내외 • **분양가격** 무료
- **신청대상** 성남시민으로 2022년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시민 1가구 1구좌 신청
  ※ 타인명의 신청, 이중신청, 1가구 2구좌 신청 시 모든 구좌 자격 취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seongnam.go.kr/agri 접속 → 소비자참여마당 → 실버텃밭 신청)
- **선정방법** 모집인원 초과 시 컴퓨터 추첨(※ 2021년 실버텃밭 미당첨자 우선순위)
- **사용기간** 4월 개장 시 ~ 11월
- **당첨자발표** 2022년 1월 24일 10:00(성남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 **당첨자 증빙서류 확인**(성남시민·이중신청·1가구 2구좌 신청 확인)

※ 상기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농업기술센터 도시원예팀 031-729-4027





2022년,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성남시의료원

취재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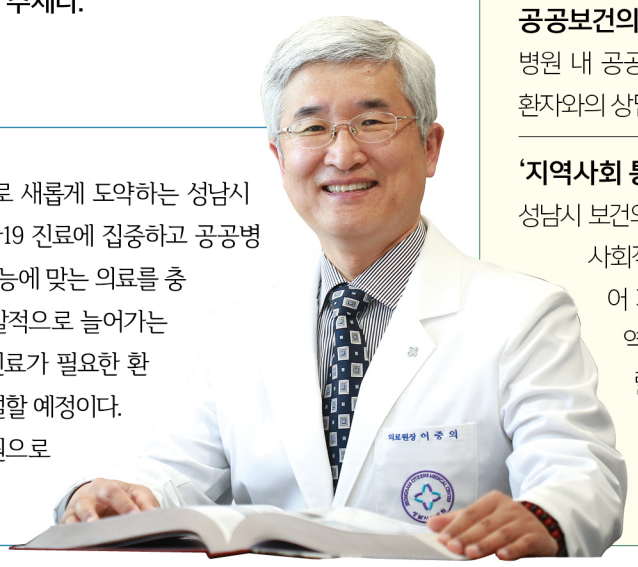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 시민발의로 건립한 시립의료원이다. 8개 내과 세부 분과를 포함해 총 22개 진료과와 5개 센터, 509병상 규모로 2만 4,711m²의 대지에 지하 4층부터 지상 10층으로 구성된 종합병원이다.

2019년 말부터 모의진료와 시범진료를 거쳐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으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던 중 2020년 12월 28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모든 의료진들이 힘을 모아 전투를 치르고 있다.

2021년 12월 20일 현재 성남시의료원에서 치료한 누적 코로나19 환자수는 4,862명이고 누적 일반환자수는 6만4,644명이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중환자실을 운용해 경증의 환자보다 위중한 환자 치료에 집중하며 확진자 혈액투석 시행, 확진자 전신마취 수술 시행, 확진 소아 환자 및 보호자 입원실 운용, 생활치료센터 운용,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운용, 예방접종 센터 의료진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남시의료원 본연의 업무도 충실히 수행해 일반·외래 입원 환자들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시민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은 새해,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로 새롭게 도약하는 성남시의료원을 대표해 "새롭게 밝아오는 2022년에도 코로나19 진료에 집중하고 공공병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그 기능에 맞는 의료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데 병상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재택치료 중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일반 종합병원으로서의 진용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 추진계획

- 통합간호간병을 실시합니다.
-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개소합니다.
-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위한 외래진료센터를 개소합니다.
- 직업환경의학과, 한의학과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성남시의료원만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과잉 진료나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진료과별 다양한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의로 구성돼 처음부터 전문의가 환자를 진료하므로 환자에게 적합한 진료와 검사를 시행한다.

당일 검사, 진료가 원스텝으로 돼 편리합니다.

혈액검사·임상화학·진단면역·소변검사 등을 원활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동화 전처리 시스템과 최첨단 진단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어 환자가 내원해서 진료 및 검사결과까지 당일에 받아 볼 수 있다.

장애인 친화 진료 기능을 강화합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와 전문화된 재활치료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행동발달장애인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이 있어 취약계층 시민들을 돕습니다.

병원 내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이 있어 취약계층 시민의 진료나 입원 시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보건의료 당국 및 보건의료 자원들과 밀접하게 연계해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나아가 병원을 찾는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돌아가 연속적인 치료 서비스를 받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 대표전화 031-738-7000 www.scmc.kr

NEWS 01

은행동 성남시식물원 내 '사계절 초록 온실' 개장



성남시는 중원구 은행동 성남시식물원 내에 '사계절 초록 온실'을 건립해 12월 17일 개장했다.

사계절 초록 온실은 건축면적 291m², 높이 4.5~6m의 단층으로 지어졌다. 철골조에 복층유리를 이어붙인 통유리벽 형태다. 시는 초록 온실에 부겐빌레아, 덕구리난, 말바비스커스 등 모두 104종 4,462본의 지중해·아열대·난대 식물을 심었다. 파파야, 금귤, 아보카도, 올리브 등의 열매 나무, 애기동백, 병솔나무, 쿠페아 등의 개화식물, 브룬펠시아, 야래향, 라벤더 등을 오감 체험할 수 있다.

현무암을 1~1.8m로 쌓아 올려 틸란드시아 등의 착생식물을 붙인 9개 석부작 기둥 숲, 1~2.5m 높이의 5개 식물 탑, 버려진 고목 뿌리를 재활용한 고목이끼 숲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이곳 온실은 식물 생육상태에 따라 온도·습도·채광을 자동제어하는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이 도입돼 사계절 쾌적한 녹음 상태를 유지한다.

이번 온실이 설치된 성남시식물원은 총 5만7,700m² 면적에 야생화원, 관목원, 허브원, 교목원 등 식물 군락과 정원이 조성된 자연 휴식공간이다. 목공체험, 정원해설, 계절별·월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간 4만여 명의 시민이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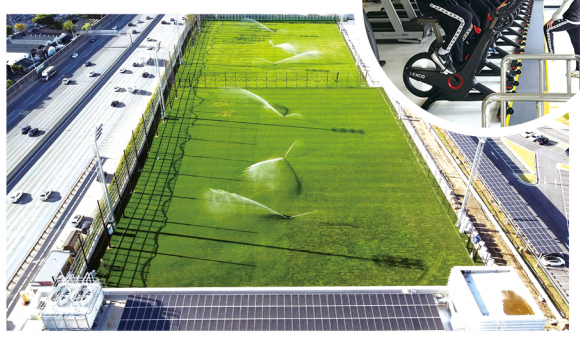
녹지과 조경팀 031-729-4312

NEWS 02

성남축구센터 준공

선수 숙식·훈련·물리치료 '원스톱'… 클럽하우스, 천연잔디 경기장 2면 조성





성남시는 성남FC 선수들의 숙식과 훈련, 물리치료까지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갖춘 '성남축구센터'를 건립해 12월 14일 준공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성남축구센터는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분당구 정자동 4-12번지 외 1필지의 2만9,977m² 시유지에 건립됐다. 클럽하우스 건물 1개 동이 들어서고, 천연잔디 경기장 2면이 조성됐다. 클럽하우스는 바닥면적 2,256m², 연면적 7,304m²,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선수들의 숙소와 식당, 실내연습장, 체력단련실, 라커룸, 물리치료실, 의무실, 냉·온탕, 휴게실 등이 있다. 축구 팬들을 위한 관람 시설, 라운지, 83대의 실내·외 주차 시설을 갖췄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FC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훈련환경을 제공해 경기력을 높이고 시민과 하나 되는 명문구단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면서 "축구센터 시설을 활용해 유소년 축구 꿈나무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FC는 김남일 감독과 11명의 코칭스태프, 33명의 선수가 뛰고 있다. 현재 K리그1 잔류를 확정 지은 상태다.

체육진흥과 시설조성팀 031-729-3052

NEWS 03

성남시 위례아파트 단지에 23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市-입주자 대표회의 협약… 초등학생 돌봄

성남시는 수정구 위례광장로 97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아파트단지 내에 내년 6월 23번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12월 10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정영수)는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인 공방·멀티 프로그램실 공간 201.13m²(60평) 규모를 성남시에 무상임대한다. 이곳은 초등학생 40명 규모의 다함께돌봄센터로 리모델링된다. 어린이 식당, 2개의 프로그램실, 유희실 등을 설치한다.

돌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상 생활교육, 독서 지도, 신체놀이, 음악·미술·체육·과학·놀이활동이 이뤄진다. 조리사가 직접 조리한 급식과 간식도 제공한다.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는 내년 말까지 32곳으로 늘어 공공 돌봄 영역이 확대된다.

아동보육과 다함께돌봄팀 031-729-2866

NEWS 04

성남시 노인·치매 통합지원 네트워크… 10곳 기관·단체장 위촉

의사회·의료원·소방서·경찰서 등

성남시는 행정·의료·복지·돌봄·문화·안전·보호 분야의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노인·치매 통합지원 네트워크 대표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4일 대표위원 위촉식을 했다. 위촉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위촉된 대표위원은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료원, 성남소방서, 성남중원경찰서 등 10곳 기관·단체장이다.

해당 기관·단체는 성남시가 요청하면 노인과 치매 환자의 신변 보호, 정서와 여가생활, 신체와 정신건강, 일상생활 분야를 각각 지원한다. 노인·치매 통합지원 네트워크 대표위원회는 이날 첫 정기회의를 열어 노인·치매 통합지원과 관련한 상담 콜센터 개소, 실무위원회 모집, 특화사업 추진계획 등을 회의안건으로 다뤘다.

내년 1월이면 시청 노인복지과에 노인치매팀과 상담콜센터가 설치·운영돼 노인과 치매 환자,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031-729-3066

알아두면 좋아요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안내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성남시는 아파도 생계 걱정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면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2억5,700만 원 이하인 일하는 시민이 대상이며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노동자, 1인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된다.

사업 시행일인 2021년 10월 25일 이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액(2021년 84,000원, 2022년 88,640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연간 최대 13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입·퇴원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 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성남시청 고용노동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유급병가' 검색

고용노동과 노동권익팀 031-729-8732

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 **대상**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 ※ 기존 신청자 자동으로 신청 갱신. 차량 변경 시 새로 신청 필수
- **기간** 2022. 1. 16 ~ 1. 31
- **신청방법**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 **납부방법** 전국 모든 은행 CD/ATM,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위택스 또는 은행 CD/ATM 이용),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ARS(031-729-3650),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수정구 세무과 031-729-5150~6
중원구 세무과 031-729-6150~5
분당구 세무1과 031-729-7150~6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 **내용**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지역임을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안내
- **목적** 단속지역임을 실시간 안내함으로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 **서비스 지역** 성남시 내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지역(주민신고제, 현장단속, 버스레드존은 알림서비스에서 제외)
-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parkingsms.seongnam.go.kr) 또는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교통기획과 교통지도팀 031-729-3702



성 남 시
WWW.SEONGNAM.GO.KR

마을공동체 '샛길 나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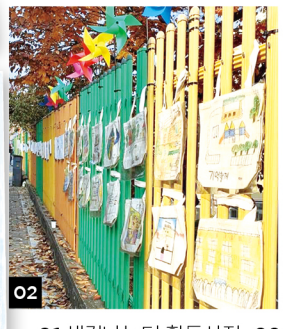
"마을은 사람들이 어울려야 해요"

사랑의 실로 한 땀 한 땀 박음질, 아기들 일상복과 조끼를 만들다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01


02


03


04

01 샛길나눔터 활동사진 02 샛길 축제 03 도란도란 의견을 나누며 작업을 하는 회원들 04 왼쪽부터 박정미 회원, 조은영 사무국장, 이선자 원장, 김경민 대표

2021년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엄마와 아기들이 생활하는 성남 새롱이새남이집에 사랑의 실로 한 땀 한 땀 박음질한 아기들 옷이 전해졌다.

중원구 상대원2동의 샛길나눔터(대표 김경민) 회원들은 조은영 사무국장에게 배운 재봉 실력을 발휘해서 미리 아기들의 옷 치수에 맞게 각기 색깔이 다른 7벌의 옷과 조끼를 만들었다.

샛길나눔터 회원들을 맞이한 이선자 새롱이새남이집 원장은 "어떻게 이렇게 같은 색이 없이 골고루 잘 만들었어요? 귀여워요! 예뻐요!" 감탄사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자'는 생각으로 조은영 사무국장이 아기들 옷을 만들어 첫 기부 활동을 시작했다. 택배를 통해 다른 지역 시설로 보내던 기부 활동을 올해는 크리스마스 전 성남 새롱이새남이집에 전달했다.

"이제 소통의 물꼬가 열렸는데,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싶은 우리 마을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벌써 이주를 준비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빈집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재개발을 문전에 두고, 샛길나눔터 마을공동체는 활동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김경민 대표의 아쉬움이 가득 전해왔다.

2012년부터 학부모들이 마을 선생님이 돼 마을과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부 활동을 펼쳤다. 아이들 졸업과 동시에 학부모로는 활동할 수 없는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학교와 마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샛길나눔터' 마을교육공동체를 결성했다. 처음 13명이 시작했는데 마을과 마을이 연대해 지금은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마을의 특성에 맞춰 마을 안 학생들과 어르신들과의 공감을 끌어냈고, 마을 축제 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겨울철이 되면 마을 어르신들이 학생들과 주민들을 초대해 만두를 빚고 음식을 나눴다.

코로나19라는 단어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수록 '샛길'은 새로운 활동을 찾아 나섰다. 샛길나눔터 조은영 사무국장은 재봉틀 사용법과 옷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을 활동가들에게 가르쳤고, 마스크를 만들어 마을 어르신들과 학생들에게 나눔을 한 것을 시작으로 옷을 만들게 됐다.

어르신들은 전달해 드린 배추·무 화분을 열심히 물을 줘서 길렀고, 회원들은 '할매야기방' 프로그램과 연계해 어르신들에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꽃바지를 만들어 드렸다.

샛길나눔터는 지역 현실과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세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체험과 나눔으로 아이들과 주민들의 손을 잡는 날을 희망하면서 오늘도 재봉틀을 돌린다.

생태 이야기

겨울철 실내생활, 공기정화식물이 최고

취재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스킨답서스와 테이블야자

겨울철 추운 날씨로 창문을 잘 열지 않는 상황에서 실내공기는 오염정도가 실외보다 2~5배 더 심하다고 한다. 그래서 겨울철엔 공기정화기능을 가진 식물들의 가치가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가지는 효과와 함께 더 중요해진다.

식물이 햇빛을 이용해 광합성작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면서 공기정화기능을 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식물마다 정화하는 오염물질이 다르고 생장조건이 다르다 보니 생활공간마다 적정한 식물이 다르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침실의 경우 밤에도 기공을 열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특성을 가진 식물이 필요하다. 다육식물과 선인장이 밤이 되면 침실의 산소탱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육식물의 경우 건조한 곳에서 수분조절 기능을 터득한 식물이어서 공기정화와 함께 천연가습기 역할도 한다. 3시간 정도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두면 잘 자란다.

화장실은 암모니아 등의 냄새제거기능이 우수하면서 햇빛이 들지 않는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 좋다. 관음죽은 화장실 암모니아 냄새 등 퀴퀴한 냄새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 스파트필름은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뷰티제품에 많이 사용하는 아세톤이나 공업용 화학물질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에 두면 효과적이다. 테이블야자, 안스리움도 좋다.

주방도 공기정화식물이 큰 몫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식물이 필요하다. 스킨답서스, 산호수, 파키라, 벤자민 고무나무 등이 있는데, 특히 거베라는 플라스틱 소재로 된 물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이나 종이타월 등의 주방용품에서 나오는 포름알데이드 등의 물질을 제거해 주는 효능이 있다. 스킨답서스는 특히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우수해 주방에 추천되곤 한다.

공부방은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는 음이온을 방출하면서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는 식물이면 더 좋다. 음이온을 방출하는 팔손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로즈마리 등을 책상 주변에 두면 좋다. 특히 팔손이는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고 둥글고 손바닥을 편 것 같은 넓은 잎이 여덟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충분히 물을 주면 잘 자란다.

사무실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전자제품이 많은데 사무용기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이 걱정된다면 산세베리아, 아이비, 네피스, 칼랑코에 등이 좋다. 네피스는 담배연기를 흡수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스투키는 NASA(미 항공우주국)가 선정한 최고의 공기정화식물로 음이온 배출량이 많아 전자파 차단에 효과적이다.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면 된다.

거실에는 햇빛을 적게 받아도 잘 자라는 식물이 좋다. 아레카야자, 피닉스야자, 대나무야자, 인도고무나무, 드라세나 등이 추천된다. 아레카야자의 경우 공기 중 화학적 독소를 정화시킬 뿐 아니라 1리터 수분을 발산할 정도로 습도 조절능력이 탁월해 가장 친환경적 공기정화식물로 선정됐다. 뱅갈고무나무도 큰 잎이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기공으로 먼지를 빨아들인다. 공기정화 과정에서 넓은 잎에 먼지가 붙어 식물의 호흡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천으로 잎을 닦아주는 것이 좋다.

공간에 맞는 식물을 키우며 공기도 정화하고 실내를 아름답게 꾸며보는 것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일 것 같다.

성 남 시
WWW.SEONGNAM.GO.KR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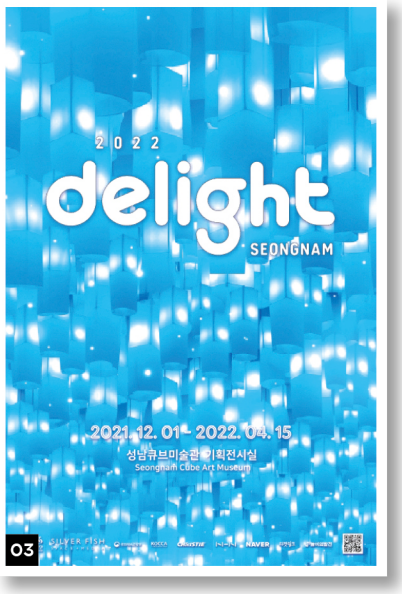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성남 <2022 딜라이트 성남>

취재 **양시원 기자** seew2001@naver.com

다양한 미디어 기술로 성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나보는 미디어아트 전시 〈2022 딜라이트 성남〉이 12월 1일 성남큐브미술관에서 시작됐다.

성남문화재단과 미디어 디자인 그룹 ㈜디자인실버피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예술과 기술을 접목한 실감,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성남의 역사를 조망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시간여행을 선사한다.

총 7개의 테마로 구성된 공간들은 미디어 파사드(벽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콘텐츠 영상을 투사하는 기법)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아트까지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적용했다.



03

첫 공간인 **<12지신의 숲>**은 성남의 과거로 떠나는 긴 여정의 시작으로, 현실세계에 펼쳐진 신화의 숲에서 오랜 시간 우리의 수호신이 되어준 12지신을 만나본다는 콘셉트를 담았다. 이어지는 **<빛의 회랑>**에서는 자욱한 안개와 어둠 가운데서 서서히 밝아지는 달빛을 통해 조용한 잠재력으로 빛나는 성남의 강한 에너지를 표현한다.

전통 청사초롱이 만들어내는 미디어 쇼 **<Welcome to Delight>**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의 변화를 통해 성남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과거의 기억들을 현재로 소환한다.

관람객들은 조명으로 수놓은 꽃길을 거닐며 빛의 향연을 만나볼 수 있다. **<다이내믹 성남>**과 **<거리, 은유>**에서는 성남의 다양한 얼굴과 삶의 모습을 조망한다. 분주한 성남의 일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시간과 사람을 통해 성남만이 가진 매력을 찾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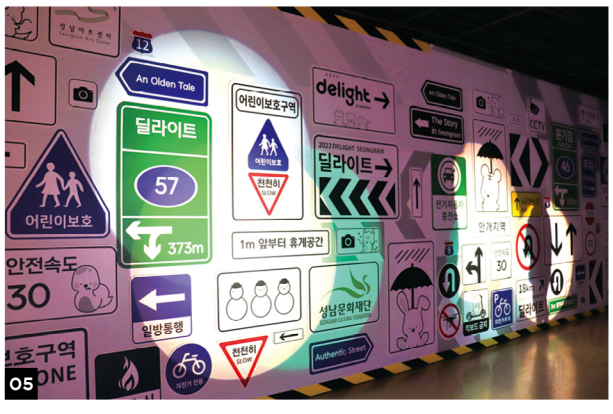
어린이 책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계명진 작가와 협업한 공간 **<설화>**는 전래동화를 미디어 파사드로 생생하게 구현한 작품으로, 시공간의 경계, 현실과 비현실을 넘어 마치 바닷속을 헤엄치며 이야기를 따라가는 듯한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마지막 공간 **<성남 스토리>**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성남의 모습을 통해 미래의 나, 미래의 성남, 미래의 한국을 향한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신창근 과장은 "성남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담은 〈2022 딜라이트 성남〉은 화려하고 다채로운 영상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시공간을 넘어 성남의 잠재력을 만나는 감각적인 시간여행이 될 것"이라며 관람을 추천했다.

01 Welcome to Delight **02** 빛의 회랑 **03** <2022 딜라이트 성남> 포스터 **04** The Myth – 12지신의 숲 **05** 거리, 은유


04



05

생활법률 Q&A

'윤창호법은 일부 위헌결정' 헌법재판소의 판단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가 재차 적발되었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1항)으로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꾸고, 형량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고 또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헌재는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제한이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그런데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으로 정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 됐으나 음주운전의 형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유진 변호사



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진행



성남시의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이 진행됐다.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는 윤창근 의장의 개회사와 성남시장의 시정연설로 시작했다. 윤창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남용삼 의원의 노인보호구역에 대하여 ▲ 박은미 의원의 성남시 5060 평생학습에 대하여 ▲ 선창선 의원의 성남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에 충실할 때입니다 ▲ 서은경 의원의 성남시 적극행정은 계속되어야 한다에 관하여 등 5분 발언도 진행됐다.

이후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이 의결됐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조 2,647억 657만 6천원이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조례 및 일반의안 40건을 심사했다.

11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열렸으며 안극수 의원의 시 보조금 관련 5분 발언으로 시작해 최현백 의원, 안광림 의원, 이준배 의원, 김명수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최현백 의원은 ▲ 삼평동 641번지 부지 매각 진행 상황과 건축 계획 ▲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및 교통 대책 등에 대하여, 안광림 의원은 ▲ 대장동 개발사업 ▲ 백현지구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이준배 의원은 ▲ 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 삼평동 641번지 및 725번지 부지 등과 관련하여, 김명수 의원은 ▲ 성남시 주요기업유치현황과 파급효과 ▲ 정자동 1번지 마이스 관련 교통대책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부시장과 각 국장의 답변, 성남시장의 총괄답변이 이어졌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의안건 47건이 가결 및 채택됐으며, 가결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문’,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정례회 회기 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의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제도 개선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민제보를 받았으며,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에 나서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 발의 이유,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볼 수 있다.

개시일	발의자	조례명
2021. 10. 22	고병용, 이준배 의원 등 30명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10. 29		
2021. 12. 6	최현백 의원 등 19명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2021. 12. 13	강신철 의원 등 19명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13	윤창근 의원 등 10명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 12. 27	조정식 의원 등 13명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 한국항공우주산업본부 견학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ADEX를 통한 성남시 발전방안 연구회’는 지난 11월 15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KAI(한국항공우주산업)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 ADEX를 통한 성남시 발전 연계 현장 실사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추진됐으며,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을 비롯해 의원연구단체 ‘서울ADEX를 통한 성남시 발전방안 연구회’의 강현숙 회장, 최미경, 유중진, 김선임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
먼저 KAI 산업현황에 대한 보고 후 성남시 ADEX와 관련해 학부모·학생의 소음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으므로 행사 전 진정성 있는 소통의 필요성, 행사가 수능과 가까운 시점에 진행되는 것을 피해 3~4월 진행 검토,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 검토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5060 Jump up!(회장 박은미 의원)’은 11월 17일 오전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성남시 5060세대 평생학습 및 일자리 연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성남시 5060세대 평생학습 및 일자리 연계방안 연구용역’은 성남시 신중년의 특성과 평생학습 참여 목적을 분석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일자리 연계와 관련해 연계 가능한 일자리 확보, 교육과정 계획단계부터의 일자리연계 전문가·수요기업들의 참여 확보, 교육과정 참여자의 엄격한 선발기준 마련, 일자리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제공 등이 분석결과로 도출됐다.
의원 연구단체 회원, 성남시 관계 공무원(평생교육과장, 도서관지원과장) 및 용역수행업체(미래여성커리어협동조합)가 함께 보고회에 참석해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함께 성남시 5060세대 평생학습 및 일자리 활성화의 미래를 그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최종보고회 종료 후 ‘5060 Jump up!’ 박은미 회장은 “앞으로 나올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성남시 5060세대들을 위해 지역별 전담기관을 거점으로 관내 유수 기관 및 대학과 협업해 교육환경과 공간 확보 등 민관산학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강상태)는 11월 17일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판교청년지원센터와 청년맞춤제작소를 직접 방문해 청년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강상태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강신철, 서은경, 최미경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함으로써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현동에 위치한 판교 청년지원센터는 지난 6월 25일 준공됐으며, 1인 크리에이터, 미디어실, 쿠킹클래스, 공유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청년맞춤제작소는 진로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건강칼럼

낙상 예방과 고관절 골절 치료



박기홍 정형외과 전문의
성남시의료원 진료부장

매년 겨울이면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낙상이다. 겨울철에는 눈이나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급성기 의료비 발생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부담과 병원 치료 후에도 거동이 어려워 재활·요양병원, 요양원 입원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이 증가해 노인에게서 낙상에 따른 골절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낙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절 중 치료가 어려우며 합병증이 많고 생명에도 위협적인 노인의 고관절 골절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낙상의 원인

낙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신체적 요인이 있다.
환경적 요인은 미끄러운 바닥, 장애물, 문지방, 경사 급함, 손잡이가 없음, 울퉁불퉁한 바닥, 어두운 조명 등이 있으며, 개인의 신체적 요인에는 치매, 우울증, 파킨슨병, 뇌졸중, 백내장, 노안에 따른 시각 이상, 평형 이상으로 인한 어지러움, 하체의 근력 및 사지의 경직이나 허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부정맥, 심근경색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진정 수면제, 저혈당증, 혈압강하제 등의 약물복용이나 장시간 침상 안정 등으로 균형감각이 일시적으로 소실돼 생기는 일도 있다. 특히 골다공증으로 인해 인대 및 뼈의 구조가 약해져 있는 여성과 노인들에게 있어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의 낙상은 고관절 골절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고관절(엉덩이 관절) 골절 및 치료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로 몸체와 다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체중을 다리에 전달하는 대퇴골의 머리와 골반의 비구로 이루어진 볼-소켓 관절이다. 대부분 빙판길이나 욕실 등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면 대체로 대퇴골 윗부분이 금이 가거나 부러진다. 근래에는 낙상 후 엉덩이 부위 통증의 원인이 대퇴골에 금이 간 경우를 단순한 타박상으로 오인해 집에서 2~3일 머물며 시간이 경과되거나 악화돼 완전히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벼운 낙상 후에 거동이 가능하고 경한 통증만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 방사선 검사를 통해 골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관절 골절은 저절로 낫는 법이 없으므로 수술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로써 조기 보행을 유도해 합병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고관절 골절 수술 방법에는 자기 관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러진 뼈를 빨리 고정해 유합시키는 '내고정술'과 관절을 금속으로 갈아 끼우는 '인공관절'이 있다. 인공관절 수술 방법에는 대퇴골의 머리와 골반의 비구 모두 바꾸는 '전치환술'과 대퇴골 머리만 바꾸는 '반치환술'이 있다. 근래에는 기대 수명 연장과 활동적인 노인이 많아서 수술 결과가 더 좋고 오래 사용 가능한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의학 기술 발전으로 최소절개 수술법 적용으로 회복 기간이 단축돼 수술 후 2~3개월에 정상적인 독립보행이 가능해졌다.

낙상의 예방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낙상을 일으키게 하는 주위 환경요인을 개선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예방과 환경요인 정비,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영양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에는 외출 시 적당한 보온 및 장갑 착용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 경직되지 않도록 하고 강추위 및 눈이 많이 온 날에는 가능한 외출을 삼가도록 한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지 말고 빙판 진 계단이나 길에서는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는 등 조심해야 한다. 신발을 선택할 때도 뒷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럽지 않으며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고 보행 시 지팡이나 워커, 적절한 보호 패드를 사용해 낙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환경요인 정비를 위해서는 조명은 밝게 유지하며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매트를 깔고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또 방이나 거실 바닥에 걸레나 각종 전선이 널려 있지 않게 주변을 정돈하고 노인이 생활하는 공간 바닥은 충격이 적게 발생하는 두꺼운 카펫을 사용하며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는 테이프로 고정하는 것이 좋다.

가족 구성원 중 노인의 방을 배정할 때는 세면대와 화장실 가까운 방으로 하고 전화기는 침대 옆에 두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지속적으로 신체의 근력과 균형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며 자세 및 걸음걸이를 교정하고 뼈와 근육을 튼튼히 하며 유연성과 평형감각을 증대시켜 낙상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운동요법**이 있다. 또한 **적당한 영양 섭취**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해 성남권역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노인 고관절 골절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된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시부터 치료요구도,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 환자 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해 다학제적으로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퇴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퇴원 이후에도 연속적인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요구도에 따른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지하고 비계획 재입원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교실

치매가족교실 '헤아림' 참여자 모집



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12월 27일부터 1월 14일까지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헤아림 가족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헤아림'은 중앙치매센터의 표준화된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치매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헤아림 가족교실은 총 5주 과정으로, 주1회 90분씩 운영된다. 수업은 1월 1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10:00-11:30), 오후(13:30-15:00)에 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정자동 소재) 1층 가족교실에서 진행된다.
1~2주차에는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 유형별 초기 증상, 치매 위험요인, 치매진단, 치료 및 관리 등 '치매 알기'를 배우고, 3~5주차에는 마음 이해하기,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 의사소통방법, 가족의 자기 돌보기 등 '돌보는 지혜'를 알아본다.
가족교실을 종료한 이후 치매안심센터는 '자조모임'을 구성해 치매환자 가족 간 정서와 정보 교류를 통해 심리적 부양부담을 감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진단을 받은 가족이 있는 분당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신청은 분당구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된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예방관리팀
031-729-3638, 4052

장서각 산책

옥산부대빈(玉山府大嬪), 장희빈의 마지막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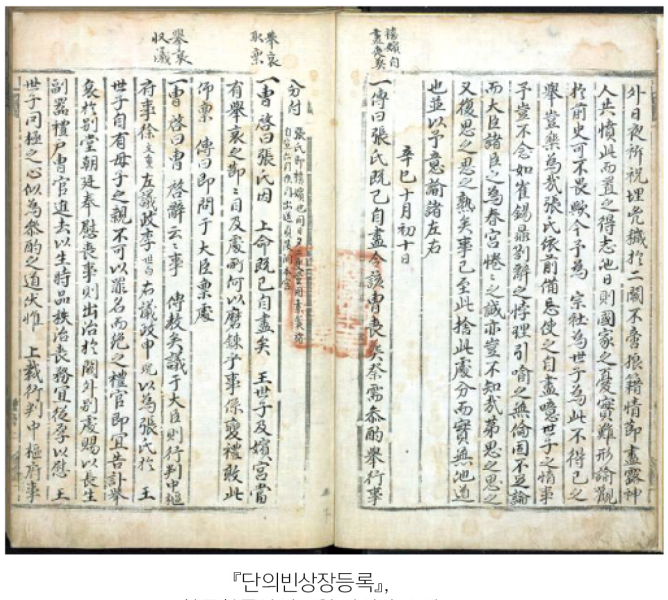
김윤정 정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사극의 단골 주인공인 장희빈은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여성 중 한 명이다. 장희빈과 인현왕후 그리고 숙빈최씨의 이야기는 궁중암투를 넘어, 숙종대 서인과 남인의 환국정치 속에서 라이벌이자 희생양이 됐던 그녀들의 삶을 조망한다.

장희빈의 이름은 장옥정, 역관 집안 출신의 궁녀로서 1686년(숙종 12) 승은후궁이 됐다. 후궁은 품계와 성씨를 붙인 호칭으로 불렸으므로, 궁녀 장옥정은 종4품 숙원(淑媛)의 품계를 받으면서 장숙원이 됐다. 왕자를 낳은 후 1689년(숙종 15) 1월 15일에 내명부 정1품 빈(嬪)에 책봉되면서 비로소 장희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1689년 5월 기사환국으로 인현왕후가 폐위됐고, 1690년(숙종 16) 10월 희빈은 왕비로 책봉돼 중전으로 불리게 됐다.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인현왕후가 복위되면서, 중전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됐다. 인현왕후가 1701년(숙종 27) 8월 14일에 승하하자, 희빈의 복위를 위한 남인들의 정치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장희재의 복권과 희빈의 상복을 다른 후궁과 구분해야 한다는 상소가 이어졌다. 그러나 숙빈최씨의 고변으로, 희빈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10월 10일에 자진했다.

사극에서 희빈은 사약을 마시고 사망하지만, 『실록』에서 숙종은 희빈에게 자진을 명했을 뿐 사약을 내리지는 않았다. 세자의 생모에게 일반적인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사약 집행은 없었다. 성종대 폐비 윤씨의 사사(賜死)와 연산군의 복수를 거울삼아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희빈이 자진한 당일 밤, 시신은 소금저(素錦褚)로 덮혀 선인문(宣仁門)의 협문을 통해 정릉동 본가로 보내졌다. 희빈이 죄인으로 사망하면서, 상장례 과정에서는 더 이상 희빈이 아닌 장씨로 호칭됐다. 당시 14세의 세자였던 경종은 법적인 어머니인 인현왕후의 국상에서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그러나 생모를 위해서는 가장 가벼운 시마(緦麻) 상복을 입고 곡하는 것 외에, 어떤 상례 절차도 행할 수 없었다. 장례 전날 빈소에 친림한 것이 생모와 영원히 이별하는 마지막 인사였다.



『단의빈상장등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772년(경종 2) 신임옥사로 소론이 득세하면서, 비로소 추존(追尊)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종은 생모를 옥산부대빈(玉山府大嬪)으로 추존하고, 대빈묘(大嬪廟)를 새로 조성해 신주를 봉안토록 했다. 옥산부대빈은 희빈의 본관인 옥산(인동의 옛 이름)에 덕흥대원군의 예와 같이 '대'자를 결합해 만든 칭호로서, 경종이 어머니에게 바치는 새로운 이름이었다.

이 과정에서 죄인으로 죽은 장씨를 '대빈'으로 추존하는 것은 숙종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경종은 관련자를 처벌하고 추존을 강행했다. 1723년(경종 3) 5월 26일 큰비가 내리는 날, 경종은 신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대빈묘에 신주를 봉안하는 의례를 거행했다. 다음해 경종이 승하하면서 옥산부대빈은 장희빈의 마지막 이름이 됐다.

1724년 즉위한 영조는 생모 숙빈최씨의 사당인 숙빈묘(淑嬪廟)를 경복궁 북쪽에 조성했고, 1744년(영조 20)에는 육상(毓祥)이라는 묘호를 새로 정했다. 1753년(영조 29) 6월 25일 숙빈에게 '화경(和敬)'이라는 시호를 더하고, 육상묘를 육상궁(毓祥宮)으로 승격시켰다. 영조는 생모를 왕후로 추존하지는 않았지만, 시호를 계속 추가해 숙빈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숙빈의 마지막 이름은 '화경휘덕안순수복숙빈최씨(和敬徽德安純綏福淑嬪崔氏)'로 남아 있다.

현재 대빈과 숙빈의 신주는 후궁인 왕의 생모를 위한 사당인 칠궁에 모셔져 있다. 대빈의 소박한 이름은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뿐만 아니라 아들인 경종의 불안하고 짧은 일생을 함께 보여준다. 반면 숙빈의 화려한 이름은 영조의 길고 안정적인 치세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오페라 이야기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취재 조윤수 기자 choyoonsoo@gmail.com



주세페 베르디(1813-1901)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유튜브 연결

유튜브에 '비전성남 오페라이야기 라트라비아타'를 입력하면 '축배의 노래'와 오페라 전곡의 영상을 찾을 수 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비전성남 음악칼럼은 '오페라 이야기'로 새롭게 시작한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La Traviata>는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대표작 중 하나로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와 함께 그의 오페라 창작 절정기에 작곡돼 오늘날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1948년 한국에서 공연된 첫 오페라이기도 한 <라 트라비아타>는 당시 일본식 명칭 <춘희(椿姬)>로 소개돼 최근까지도 <춘희>, <라 트라비아타>, 또는 오페라 원작 제목인 <동백꽃 여인>으로 혼용돼 불린다. 오페라의 원작인 『동백꽃 여인』은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이자 극작가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의 작품으로, 동백꽃을 항상 가슴에 달고 다니던 한 여인의 비극적 사랑을 담은 소설이다. 작가와 한때 연인관계였던 파리 사교계의 여왕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뒤마 피스의 자전적 소설이라 할 수 있다.

화류계 여성과 상류층 젊은 남성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오늘날에는 진부하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프랑스 부르주아 사회의 관습과 편견을 폭로한 '사회문학'으로 받아들여져 꽤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다.

베르디의 손을 거쳐 '길 잃은 여인'을 뜻하는 '라 트라비아타'로 재탄생한 이 작품에는 여주인공 비올레타의 아리아 '아, 그대인가'를 비롯한 주옥같은 노래가 여러 곡 담겨 있다. 그중 1막 시작과 함께 들리는 '축배의 노래'는 파티에서 만난 비올레타에게 첫눈에 반한 젊은 귀족 알프레도의 노래로 시작해, 비올레타의 답가, 두 사람의 이중창 그리고 합창으로 연결되는 흥겨운 권주가(Brindisi)다.

베르디 음악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오케스트라의 '움파파 움파파' 반주에 맞춰 "마시자, 마시자, 축배를!"을 외치며 비올레타에게 구애하는 알프레도에게 비올레타는 이렇게 답가를 보낸다.

"즐겨요!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아름답게 핀 꽃도 곧 시들어 버리듯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할 때가 오겠죠. 즐겨요!"

신년 첫 클래식 음악으로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를 전하며 2022년은 사랑과 기쁨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즐기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2022년 1월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교육일정	대상	내용	참여방법
겨울방학 특강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업사이클 뱃지 만들기	평일	전체	종이 쇼핑백, 헌 옷, 포장지, 과자 봉지 등 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나만의 업사이클 뱃지를 만들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프로그램	- 매월 1일부터 다음 달 분 예약 가능 - 신청 시, 페이지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꼭 확인바랍니다.
	맑은 하늘을 부탁해	1. 5, 19(수) 7, 21(금), 9, 16, 23(일), 10:30	8~13세 가족	미세먼지가 우리 몸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배우며, 가정에서의 미세먼지 감소를 생활화하는 프로그램	
	바라미 다지미의 에코팡	신청: 1월 중 진행: 2월 중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성남의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남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환경생태체험 서비스입니다. - 미션체험교육 프로그램	
제로웨이스트 에코클래스	친환경 마크라메 소품 만들기	1. 9(일) ~ 23(일), 22(토) 매주 주말, 13:00	14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나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며 친환경 마크라메 소품을 만드는 프로그램	
	친환경 샴푸바 만들기	1. 15, 22(토), 15:00	14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나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며 친환경 샴푸바를 만드는 프로그램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새바라기의 깃털이야기	1. 8(토) ~ 1. 23(일), 매주 주말 11:30, 13:30	전체	- 『羽 날아오르다. 새바라기 세 번째 이야기』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 전시를 함께 감상하며, 깃털의 원리를 알고 함께 배워보는 프로그램	

※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

판교환경생태학습원 교육과 http://ppark.seongnam.go.kr, 031-604-9562

맹산환경생태학습원 MaengSan Eco Center 2022년 1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상	수업 일정	내용
에코키즈 A		유아단체 (5~7세)	화~금요일 오전/오후	1월 - 추운 겨울 동물들은
에코키즈 B		초등단체		
<신규프로그램> 탄소중립레인저		유아단체 (6~7세)	금요일 오전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탄소흡수원 나무를 활용해 목공 활동 프로그램
맹산숲속이야기		유아가족 초등가족	토·일요일 오전/오후	환경부 우수 환경 교육 프로그램 <월별 주제에 따라 진행>
가족목공교실		유아가족 초등가족	토·일요일 오전/오후	- 기후변화와 목재의 사용 이유를 알고 다양한 소품 만들어 보기(1분기: 새해 소망 담은 마스크걸이대)
절기따라생태원가요		초등가족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 1차시(1~6월), 2차시(7월~12월) - 매달 있는 24절기를 배워보고 절기에 맞는 활동 체험
새집모니터링단		가족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1~6월 생태원 인공 새집에 둥지를 짓고 사는 새에 관심 있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	초등겨울방학 프로그램	초등가족	화~금요일 오전	기후위기를 위한 우리의 실천 행동을 보드게임으로 배워보는 활동 <기후난민을 구하라>
	중고등겨울방학 프로그램	중고등학생	화~금요일 오전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탐구 활동 및 환경 정화 활동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비대면 프로그램	셀프생태탐사	가족	상시	QR코드를 활용해 아이들과 부모님이 야외학습장을 둘러보며 미션을 해결하고 다양한 생태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램
	자연을담다	가족	상시	유튜브 동영상에서 미리 생태원의 모습을 보고 생태원 숲을 방문해 찾아보는 프로그램
전시관람 및 체험		전체	상시	- 개구리·새·곤충 이야기 둘러보기 - 코로나19 백신 2차까지 완료한 분은 제한 없이 관람 및 체험 가능(3가족 10명 이내로 입장 제한)
자원봉사활동		청소년/단체	별도협의	도슨트, 환경 정화, 작은도서관, 모니터링 등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유튜브(YouTube)		전체	상시	생태원 소식이 궁금한 분은 [유튜브_맹산환경생태학습원] 검색 후 구독하고 다양한 영상으로 확인 가능

※ 입장 시 발열체크, QR인증(전자출입명부) 후 입장 가능.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제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바람.
※ 개인 및 가족 예약의 경우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접수.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

맹산환경생태학습원 http://mpark.seongnam.go.kr.10003/ 031-702-1192

성남시청소년재단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2022년 1월 프로그램

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접수	문의
성남시 청년 지원센터	온라인 청년지원센터	연중	온라인	청년 (만 19~34세)	- 성남시 온라인 청년지원센터(www.snspring.or.kr)	홈페이지 접수	070-4908-2090~2094
	청년 온라인 상담 게시판 '봄편지'				- 진로, 연애, 대인관계 등 각종 고민을 청년또래상담가 '마음지기'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봄편지' 게시판	
임시수정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자치기구 모집	연중	수련관	청소년 (관내 초·중·고등학생)	- **청소년동아리지원 '쿼츠'** 댄스, 환경, 역사, 봉사 등(분야 무관)/ 24세 미만, 3인 이상으로 구성 - **청소년공연단 'TA'** 배우, 작가, 연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활동/ 관내 청소년(14~24세) 대상 - **청소년 문화기획단 'ICS'** 청소년 거리공연 기획 및 지원, 조명/음향 등 공연 장비 실습 및 교육 진행/ 문화예술, 축제, 공연기획에 관심 있는 청소년(15~18세)	수련관 홈페이지 공지 참조 및 유선전화	031-729-9231~3
	초·중등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모집			청소년 (초등4~6, 중등1~3)	- 교과학습(수학, 영어, 역사논술, 학습멘토 등), 역량강화(미술, 체육, 연극, 동아리활동 등), 생활지원(급식, 상담, 등하원지도 등) ※ 교재비 외 전액 무료	유선문의 후 방문접수	초등: 031-729-9241~3 중등: 031-729-9244~6
중원 청소년 수련관	자치기구 청소년 모집	연중	수련관	청소년	- 청소년운영위원회 **[은가비]**, 청소년자원봉사단 **[온새미로]**, 청소년크리에이터 **[다옴]**, 대학생기획단 **[베리타스]**, 대학생진로멘토단 **[꿈나르샤]**, 청소년동아리연합 **[아라]**	유선문의	031-729-9331~5
	성남시 진로멘토단 모집	2022년 1~2월	수련관 및 외부활동지	직업이 있는 성인	-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전문 진로 인프라 운영 - 활동기간: 2022년 3~12월, 위촉일: 4월 중(예정)	유선문의 후 메일접수	031-729-9351
	와!락(樂) 청소년 상담실	연중	수련관 상담실, 학교 등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	- 개인(대면·화상)상담, 미술치료 심리검사, 종합심리검사, 집단상담(원예/푸드/보드게임/미디어 테라피, 진로학습코칭, 애착인형 만들기 등), 학업중단예방(학업부적응 등) 상담 및 진로체험활동	비용·예약 유선문의	031-729-9360
분당서현 청소년 수련관	2022년 청소년·청년 자치기구 및 동아리 모집	2022년 1~3월	수련관 및 외부활동지	중·고등, 대학생	- 청소년운영위원회 「W」, 청소년기획봉사단 「그늘빛」, 공정무역홍보단 「에브리바리스타」, 청소년환경기획단 「녹!(knock)녹!(green)」, 청년 리터러시 서포터즈 「ABLE」, 청년기획단 「아우름」, 따로 또 같이 하는 봉사단 「따봉」, 청소년동아리 연합 「FEVER」	수련관 홈페이지 접수	031-729-9431~6
분당정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동아리 및 자치기구 모집	1. 3(월) ~ 1. 31(월)	온라인	9~24세 청소년	- 기간: 2022. 1. 3(월) ~ 1. 31(월) - 대상: 9~24세 청소년(동아리 및 자치조직별 상이) - 내용: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미디어기획단, 기획봉사단 등 2022년 활동 청소년 모집	수련관 홈페이지 접수	031-729-9531
	청소년상담	연중	수련관 상담실	아동~성인	- 기간: 2022. 연중 - 대상: 아동, 청소년, 성인 - 내용: 대면상담, 놀이·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수련관 홈페이지 청소년상담 이용료 참조	전화예약	031-729-9560
분당판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연중	수련관·야외 체험활동장	초등4~6 (40명)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조손·다자녀·장애가정, 맞벌이 가정 우선 선발 - 내용: 학습지원활동(교과·보충), 전문체험(주중·주말), 자기개발, 특별지원, 체육, 코딩교육, 상담, 생활관리 등	전화문의 후 방문 접수	031-729-9642~44
	2022년 청소년 자치기구 신규 모집	2021. 12 ~ 2022. 2	수련관 및 외부활동지	청소년 및 청년 (14~34세)	- 활동내용: 활동에 따른 봉사활동시간 발급, 우수 활동 단원 시상 ※ 홈페이지 상단 '청소년 참여기구' 클릭, 각 자치기구 내용 참조	유선 문의	청소년자치기구: 031-729-9633~55 청년 자치기구: 031-729-9632/34/51
	2022년 청소년 참여예산제 참가 동아리 모집			청소년 (14~24세)	- 모집대상: 성남시 거주 또는 관내 14~24세로 구성된 동아리(10인 이내) - 활동내용: 동아리별 제안 활동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활동 우수 동아리 시상, 활동에 따른 봉사활동시간 발급 등		031-729-9633
분당야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청년 자치기구 모집	1 ~ 12월	수련관	자치 기구별 상이	- 청소년운영위원회(9~24세 청소년, 9835), 청소년기획단(9~24세 청소년, 9831), 청년기획단(20~34세 청년, 9832), 청소년동아리(9~24세 청소년 2인 이상으로 구성, 9833)	홈페이지 및 유선 문의	031-729-9831~983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유레카	연중	수련관 및 야외체험장 등	초등5~6 (40명)	- 운영시간: 평일 월~금 15:30-19:30 - 참가비 무료(일부 교재비 개별 부담) - 과학탐구프로젝트활동(SI-PBL), 학습지원(수학, 영어, 학습 멘토링 등), 주말체험, 체육활동, 코딩교육, 동아리활동, 상담, 생활관리, 급식지원 등	유선문의 후 방문접수 ※ 상시모집(모집완료 후 대기자 등록)	031-729-9840~2
양지동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쉐어링 운영	연중	문화의집	청소년 및 지역 주민	- 문화의집 내 시설 및 물품 쉐어링 - 채움방, 톡톡방, 새콤존, 유튜버실 등	유선문의	031-729-9953
	자치기구모집			청소년 9~24세	- 청소년운영위원회 W.A.Y, 청소년유스패트롤(주짓수) J.Y.P, 청소년미술봉사단 『**새랑**』, 청소년동아리연합 『**하랑**』		031-729-9951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해다미」 신입생 모집	연중	문화의집 및 외부활동지	중학교1~3	- 주중 교과목 학습(수학, 영어), 주중전문체험 및 PBL(캘리그라피, 통기타, 모둠북, 미래교육(코딩)), 주말체험활동(직업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 상담, 급식, 귀가차량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유선문의	031-729-9919
	자치기구 청소년 신규단원 모집			14~24세 이하 청소년	- 남한산성역사기획단 「**산바람**」, 청소년운영위원회 「**한울**」, 청소년동아리연합 「**하누리**」 - 매월 정기회의 1회 이상. 활동 공간 제공,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 봉사활동에 따른 봉사시간 제공		031-729-9912/9914/9917
성남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위기청소년 긴급복지지원 접수	상시 모집	성남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내 청소년 (만 9~24세)	- 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교복지원):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65% 및 72% 이내 해당 청소년 ※ 자세한 복지지원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긴급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유선문의 후 공문접수	031-729-9118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연중	청소년 자립플랫폼 일하루(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15~24세)	- 자립 계획 수립 후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또는 자격증 취득자 ※ 각 수당별 연 1인 1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 - 자립훈련 참여수당 20만 원 또는 25만 원 지원 ※ 30~44시간: 20만 원, 45시간 이상 이수: 25만 원 - 자립 계획에 따른 자격증 취득 시 20만 원 지원 ※ 국가/민간 등 인증된 자격증	유선문의	031-729-9181
	청소년전화 1388		전화상담	청소년, 학부모 등	-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대인관계, 진로, 학업 등의 문제에 대한 일반 전화상담 가출, 성, 학교폭력 등의 위기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031-756-1388
	성남시 정신건강 고위기 청소년 사전발굴 및 예방사업		관내 학교 상담실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내 청소년 (고등학생)	- 정신건강선별검사 실시를 통한 정신건강 고위기 청소년 발굴 및 위기 수준에 따른 맞춤형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예방적 개입	유선문의 후 공문접수	031-729-9135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일정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및 유선 문의

성남시청소년재단 https://www.snyouth.or.kr

성남시 여성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문의(단장) 010-8563-4132

모집부문	모집인원	자격요건	연습일시	연습장소	입단방법
소프라노 메조 알토	각 O명 (부족인원)	만 57세 이하, 성남시 거주 여성, 음악에 관심 있는 분, 비전공자 환영,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주 2회 (화·목 10:30-13:30)	수정구 산성대로 613 (금광청소년 비전센터 3층) ※코로나19로 인한 동영상 연습 병행	오디션 후 입단

중탑 실버대학 2022년 1학기 대면·비대면 수업 오픈

- **접수기간** 1. 4(화) ~ 1. 10(월) • **대상** 50세 이상 고령층
- **장소** 목련마을 112동 2층 실버복지관
- **내용** 1) 요가, 한국무용 미디어, 스마트폰교실 등 소수정예 대면 수업 오픈 2) 한국무용 오전·오후반 추가 오픈(일부 수업에 한해 대면·비대면 병행)

실버복지관 031-701-2988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 운영

- **기간** 연중 (화~금 13:00-19:00/ 토 09:30-13:00)
  ※ 월요일·공휴일 제외
- **대상** 만 7세 이하 자녀 및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
- **내용** 장난감대여 및 연회원 프로그램

중탑종합사회복지관 031-706-0167, www.jtwelfare.or.kr

우체국 "오늘 출발 우편물" 접수시간 안내

- **우편창구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시행일** 2022. 1. 3(월)
- **우편물 접수시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우편물 "오늘 출발"	09:00~18:00	09:00~17:30
우편물 "다음날 출발"	-	17:31~18:00

- 다음날 배송을 위해서는 "오늘 출발" 접수 시간 17:30까지 익일특급, 등기소포(택배)로 접수
- 17:31 이후 접수되는 우편물은 다음 영업일에 출발하며, 배송일이 1일 더 추가로 소요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 방법 성능중심 유지관리에서 해답을 찾다

- 우리지역 시설물은 안전한가요?
- 우리 지역 시설물 현황 및 성능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www.fms.or.kr)

국토안전관리원 http://www.kalis.or.kr

책테마파크 휴관 안내

- **휴관기간** 2022. 1. 1(토) ~ 2022. 10월 예정
- **휴관사유** 책테마파크 리뉴얼(공공도서관으로 재개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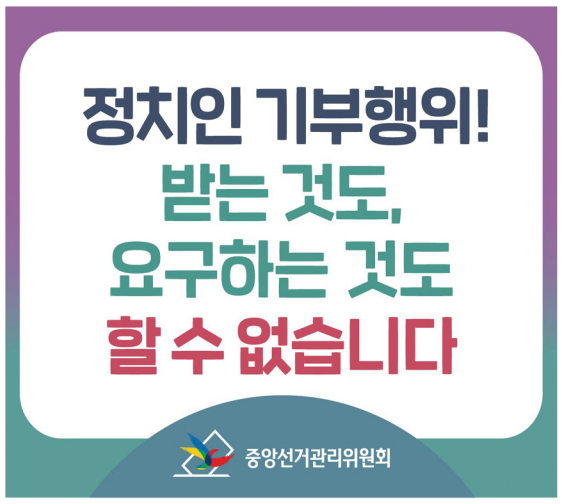
성남시도서관사업소 도서관지원과 031-729-8517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 저소득층 자활자립을위한 근로·교육 기회 제공, 근로의욕 고취 및 취업, 공동체 창업 지원
- 시장형 사업단 운영: 아동도시락 제조, 정부양곡운송, 아파트 내 택배 배송, 생협물품판매, 구내식당, 공원매점, 집수리 개·보수 등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운영: 건물 일상·위생관리, 출장 세차, 이불 수거배송 및 세탁 대행

- **대상** 조건부,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자활
- **근무시간** 주5일, 일 8시간 근무
- **참여혜택** 성과금, 4대 보험, 임대주택 가산점, 각종 자격증 취득지원, 목돈마련통장, 복지지원 연계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031-748-3500





2022년도 1·2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 무료교육 일정은 해당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구 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방법
수정도서관 (온라인교육)	(온라인) 뚝딱뚝딱 배우는 컴퓨터 왕기초	신중년 (51세 이상)	2022. 1. 4 ~ 1. 21	월~금요일 10:00-11:30	10	◦**접수기간** 2021. 12. 21(화) ~ - 뚝딱뚝딱 배우는 컴퓨터 왕기초: 10:00~ - 지니봇과 아라비안 나이트: 00:00~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선착순) 성남시 배움숲 (https://sugang.seongnam.go.kr) ◦**문의** 평생학습지원(031-724-0627)
	지니봇과 아라비안 나이트	초등 2~3학년	1. 17 ~ 3. 14	월요일 19:00-20:30	10	
중원도서관 (온라인교육)	나도 디자이너 - 미리 캔버스 활용	성인	2. 8 ~ 2. 24	화·목요일 19:00-21:00	15	◦**접수기간** 2022. 1. 18(화) 10:00 ~ 1. 20(목) 18:00 ※ 인터넷 선착순 접수로 조기마감 가능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선착순) 성남시 배움숲 (https://sugang.seongnam.go.kr) ◦**문의** 평생학습지원팀(031-752-3913, ARS.4)

중앙도서관 031-729-4635, **중원도서관** 031-752-3913, **수정도서관** 031-724-0627, **수정구청** 031-729-5072, **중원구청** 031-729-6071, **분당구청** 031-729-7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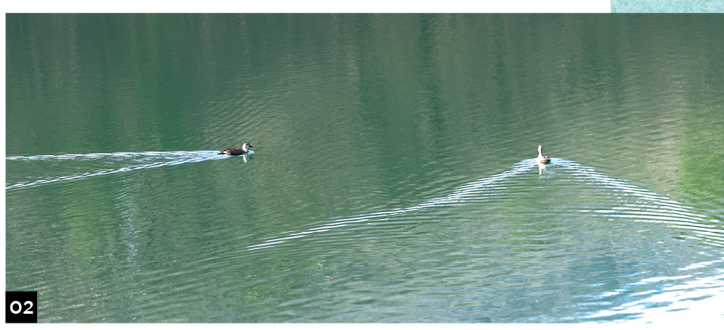
KOREA 성 남 시
WWW.SEONGNAM.GO.KR

‘장서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전’을 보고 나와서였을까

매력 있다. 끌린다. 궁금하다. 그곳, 운중동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01


02



03

도시의 건축물에는 상징성이 있다. 어떤 건축물이 있느냐에 따라 지역의 이미지가 달라지기도 한다. 동네의 이름도 그렇다. 그 이름이 가진 느낌과 이야기에 따라 동네 이미지가 그려지기도 한다. 운중동은 청계산 국사봉 아래에 있어 계곡이 깊고 구름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운중동이다. 이런 운중동의 상징적인 건축물은 당연히 한국학중앙연구원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 장서각 전시실에서 ‘장서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전’을 보고 나와서였을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금의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한중연을 나와 미래의 운중동을 돌아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시간 착시는 장서각 전시실로 들어서면서도 느낄 수 있었다. 전시실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마주치는 조선왕조실록. 전시품에만 약한 빛이 내려 어두운 전시실에 서 있는 느낌은 먼 과거로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공간에 대한 착각을 일으킨다.

장서각은 조선 왕조의 국가 전적과 민간에서 수집하거나 구입한 자료 25만 점을 소장하고 있다. 장서각 설립 40주년을 맞아 장서각의 국가·시·도 지정 문화재 45종 전체를 최초로 전면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시 장인들의 숙련된 기량이 발휘된 왕실유물인 길이 25m의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 녹훈후를 비롯한 동의보감, 월인천강지곡 등 국보와 보물을 볼 수 있다. 숙종인현왕후 가례도감의궤와 정조의 심경이 드러나는 어필, 당시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는 공신 화상들도 눈길을 끈다.

운중천을 사이에 두고 한중연 맞은편, 추수가 끝난 빈 논이 하늘을 한껏 안고 겨울을 나고 있었다. 조선시대, 먼 옛날부터 해마다 벼를 키워냈을 논, 올해도 어김없이 벼를 키워냈을 논이 동네와 잘 어울린다.

메타세쿼이아가 줄지어 있는 길을 따라 국사봉 오르는 방향으로 운중저수지가 보인다. 농업용수를 제공하려고 만들어진 저수지가 지금은 물새들에게 소문난 곳으로 바뀌었다. 민물가마우지와 논병아리가 먹이를 찾아 자맥질에 바쁘고, 흰뺨검둥오리가 오리발을 젓는 모습에서 겨울에서 찾기 힘든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운이 좋으면 원앙과 고라니도 볼 수 있다. 동물들에게 운중저수지는 재밌는 놀이공원으로, 소문난 맛집으로 통하는 듯하다.

‘장서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전’ 관람 후 공간에 대한 착각은 손두부, 칼국수, 해장국, 생선구이, 곰탕, 한정식… 등 맛집으로 어우러진 동네에서도 이어진다. 머리에 기와를 얹고 있는 기와집 식당은 한중연에서 방금 튀어나와 현재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손두붓집 주인은, “장서각에 다녀오는 길이에요”라는 말에 “장서각에 무슨 일 있어요?”라고 묻는다. 마치 “조선시대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라고 묻는 것 같다.

동네는 한중연에서부터 시작해 조금씩 모습이 달라졌다. 먼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흐름이 마을에서 엿보였다. 과거 언제부터 흘렀을까. 그 물의 흐름 옆으로는 그때부터 함께했을 땅이, 흙이 보인다. 기와집, 낡은 집…. 마을을 벗어나는 걸음 수에 따라 주택은 화려해진다. 저 멀리로 최첨단 도시가 시야가득히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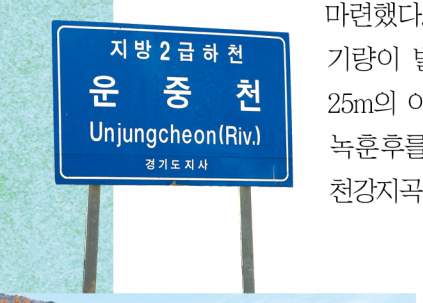
01 운중저수지
02 운중저수지에서 놀고 있는 흰뺨검둥오리
03 조선왕조실록
04 1978년 6월, 본원 개원 당시 사용됐던 정신문화연구원 표지석. 2005년 1월,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05 추수를 마치고 겨울을 나는 논과 밭 너머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보인다.
06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운중저수지로 이어지는 가로수길
07 운중동 먹거리촌 입구
0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훌쩍 튀어나온 듯한 기와집 음식점



04

장서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전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시실
일시 ~2022. 1. 21. 월~토요일 09:30-17:00
해설 회당 제한인원 6명으로 축소 운영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05


06



07


08

essay

가슴 따스한 어느 부부 이야기

김경자 수정구 상적동

얼마 전 찬바람이 쌩쌩 불던 어느 날 우리 옷가게로 중년의 남자분이 들어와서 "주부용 코트 하나 주세요"라며 주문을 했다. 손님은 아내가 보통 키에 밝은 톤이 어울린다며 이것저것 물어가며 꼼꼼히 챙겼다. 이어서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 고른 뒤 20만 원을 주면서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하자고 했다. 현금이 부족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아내가 옷값 비싸다고 딴소리할까 봐요. 원래 짠순이라…."

참 잘 어울리는 부부다. 부인은 알뜰한 살림꾼이고, 남편은 그런 성격 탓에 옷 한 벌 변변히 사 입지 않는 아내를 위해 괜찮은 코트 골라가고. 거기다 아내가 놀랄까 봐 현금과 카드를 함께 사용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센스까지. 그날 그렇게 손님은 옷을 들고 나갔다.

곧바로 다음날, 옷을 사간 남자 손님의 아내가 그 옷을 가지고 우리 가게를 찾아왔다. 그런데 이 손님, 포장을 다시 풀며 하시는 말씀.

"이 코트 좀 다른 걸로 바꾸려고요. 그래도 되죠? 60대 후반 할머니가 입으실 겨울 코트 있죠? 좀 산뜻하고 세련된 걸로 줘 보세요."

이게 웬일? 알뜰한 살림꾼인 남편은 아내를 위해 코트를 사갔는데, 그 아내는 자신에게 사준 옷을 당신의 시어머니 옷으로 바꿔 가겠다고 온 것이다.

정말 옷 하나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서로를 극진히 아끼는 부부, 시어머니를 친정엄마 이상으로 모시는 며느리. 그날 시어머니께 드릴 옷으로 바꾸어 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에 며칠 동안 내 마음이 다 행복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도 이런 성남시민들만 만났으면 좋겠다.

새해 다짐

김세연 분당구 정자동

우리 가족은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둥글게 모여 앉아 식탁을 다 덮을 정도의 큰 종이에 새해의 다짐을 적는다. 적다보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한 해를 계획하게도 돼 우리 가족만의 훌륭한 연례행사가 됐다.

계획을 세우기 전, 작년에 다짐했던 내용을 반추해 보기도 하는데, 올해도 역시 나 반 정도밖에 지켜내지 못했다.

가장 크게 반성되는 항목은 '아이들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기'였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며 적어낸 항목이었지만, 아침에 억지로 깨워 바삐 학교에 보내고,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씻기고 재우기 바빴기에 살가운 애정 표현은 잊고 살았던 듯하다. 가끔씩 돌아오는 아이의 생일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날에만 애정 표현을 해준 것 같아 이내 후회가 됐다.

반대로 아이들은 거의 모든 계획을 척척 실행해 냈다. 엄마 아빠 마사지 해 주기, 해야 할 숙제 스스로 잘하기, 언니가 동생에게 한글과 숫자 알려주기 등 어찌 보면 단순한 항목이지만 두 딸 모두 한 해 동안 잘 살아주었다는 대견함이 앞섰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낫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내년에는 나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새해 다짐을 아이들처럼 잘 지킬 것을 스스로 다짐한다. 더 많이 사랑하는 2022년을 만들리라.

2022년 우리 가족 계획은 '건강'과 '행복'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새해에는 수립한 계획들을 모두 실천해 보리라. 또다시 다가올 연말에는 '올 한 해 참 잘 살았다'라며 크게 웃어 보리라!

photo

탄천 산타



성탄절을 앞둔 12월, 이매동 탄천에 산타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중심잡기 작가인 변남석 작가의 중심잡기 밸런스 돌 작품이 산타 옷을 입고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오도연 분당구 삼평동

겨울을 맞이하는 은행식물원



우리 동네 숨은 보석, 은행식물원입니다. 연못과 정자, 그리고 꽃나무들이 사계절 각기 다른 빛을 내는 곳이죠. 겨울의 초입에선 반짝,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네요. 이제 저 너머 언덕 위 온실로 향합니다. 다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김아람 수정구 단대동

독자 수필(원고지 5매 내외, A4 ½장 내외), **사진**(성남지역 풍경, 사람들-200만 화소 이상)을 모집합니다. **2022년 1월 10일(월)**까지 보내주세요(주소, 연락처 기재).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비전성남> 편집실 **전화** 031-729-2076~8 **이메일** sn997@korea.kr

KOREA 성 남 시
www.xn--go-uo0cs83k.kr

“콩나물 50원어치 주세요”
하던 때부터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상원할인마트(상대원2동) 사장 부부 이야기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01



02


03



04


06

01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상대원2동 주택가 골목
02 산지에서 들여온 농산물을 정리하는 이수복 사장
03 물건을 정리하는 아내 신선희 사장
04 가장 오랫동안 가게를 지켜온 1945년생 크림빵
05 이수복·신선희 사장 부부
06 이광덕(왼쪽) 경위의 물품 기증

마트에서 연탄을 팔고 번개탄도 팔았었다. 가게를 가장 오래 지키고 있는 품목이라면 1945년생 크림빵이다. 1975년생 과자(샤브*)는 45년생 크림빵과 함께 꿋꿋하게 가게를 지키고 있다. 시간은 때때로 제멋대로다. 입 안에 남아 있는 과자 맛을 떠올리고 달콤한 크림을 혀로 핥던 그때로 데려다 놓고 시간은 내가 멈춰 있는 동안에도 흐른다. 불쑥 과거로 데려다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 갈 길로 가버린다.

저 오래된 과자는 마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 어떤 집에 들어가 가족의 대화에 끼기도 하고 학교에서 재잘대는 아이들 속에도 있었을 것이다. 산업현장에서도, 소풍 가는 길에도 자리를 잡고 누군가의 추억이 됐을 것이다.

“두부는 50원, 쭈쭈바도 50원, 콩나물은 50원 단위로 팔 때 장사를 시작했어요. 50원씩 팔던 것들이 지금은 대략 1천 원으로 비슷하게 올라 있죠.

연탄도, 번개탄도 팔고, 쌀은 80kg 단위로 노란 포대로 팔았어요.” 이수복·신선희 사장 부부가 시곗바늘을 되돌렸다. 40여 년 전 상대원시장 근처에서 가게를 시작했다. 남편은 산지로 돌아다니고 아내는 가게를 지켰다.

밭떼기로 구매한 제철 과일과 채소는 싱싱한 물건,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남편은 늘 산지로 돌아다니며 도매 물건을 거래하고, 아내는 자녀를 키우며 가게 일을 도맡았다. 마트 일이라면 아내 신 사장이 척척이다. 이 사장의 “아내가 두 사람 몫을 한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

수십 년 동안 가게를 지키는 품목도 있지만 어느샌가 마술처럼 사라진 것들도, 새롭게 자리 잡은 것들도 있다. 분유 회사에서 우량아 선발대회를 하고 모유보다 분유를 먹어야 좋은 것처럼 홍보하던 때는 2,500원, 3,000원 하는 분유 가격을 서로 경쟁하며 팔기도 했었다. 아기들이 별로 없어선지 몇만 원씩 하는 분유는 대형마트나 가야 볼 수 있는 품목이 됐다. 2000년대 중반 들어 생수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물을 사 먹는다는 걸 상상이나 했어요? 그때는 생수를 갖다 놔도 사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하고 아내 신 사장이 말한다.

엄마 심부름으로 콩나물 500원어치, 두부 한 모 사서 비닐봉지에 담아 가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잘 포장된 상품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남의 집에 방문할 때 선물로 인기 있던 커피와 프림이 들어있는 세트는 보이지 않고 봉지 커피가 담긴 종이상자만 보였다. 세월 따라 가격도 달라졌지만 물건의 품목도 많이 바뀌었다.

상대원2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이 사장 부부는 이웃을 위한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


05

이란 신조로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진해서 라면, 쌀, 과일 등을 척척 기부한다. 최근에는 행복 파수꾼으로 소개된 상대원2파출소 이광덕 경위의 나눔 활동에 동참하며 이웃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애경사 때를 빼고는 연중무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늘 열어 두던 가게였다. 재개발 진행으로 인해 거주민이 많이 줄었다. 손님이 일찍 끊겨 밤 9시에 문을 닫는다.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마을의 모습과 함께 상원할인마트도 사라지게 된다.

“글쎄요….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장사할지, 귀촌할지 아직은 고민 중입니다”라고 말하는 상원할인마트 사장 부부의 표정에서 아쉬움이 묻어났다. “이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가까운 곳에서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동네 마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보겠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 활동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지면은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성남의 모습을 시민과 함께 추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에 30년 이상 오래된 이색가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가게, 장인 등이 있으면 비전성남 편집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729-2076~8